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

A Study on Ecological imagination and Realistic Spirit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 영 철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

지도교수 : 나 희 덕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김 영 철

김영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우 (인)

위 원 : 조선대학교 교수 나 희 덕 (인)

위 원 : 조선대학교 교수 신 형 철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II. 1990년대 이후 생태시와 리얼리즘	2
1. 생태시의 대두와 전개	2
2. 생태시와 리얼리즘의 접점	5
III.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의 회통	8
1.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직설적 비판	8
2.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영성적 교감	11
IV. 창작시 분석	17
V. 결론	36
〈작품 첨부〉	37

【첨부 시】

잃어버린 고향	37
김씨의 칠월	38
밀고자	39
윤월(閏月)	40
왜목	41
여주	42
한여름 숲길을 지나며	43
늦가을 풍경	44
봄별 한줌 흙치고	45
누명(陋命)	46
뽕아내야 하는 것들	47
양굴마	48
혼자 크는 아이	49
이반(離反)의 강	50
백일홍	51
아마존 검정칼새의 비극	53
원죄	54
상사화	55
세월, 그 거룩한 보답	56
아버지의 경전	57
강물은 하늘을 닮는다	58
이심전심(以心傳心)	59
바다와 어부	60
갈매기	61
허위	62
천당 극락이 이보다 좋다 한들	63
산동반도를 건너며	64
바람꽃	65

너구리 바람	66
방울토마토	67
달빛 사랑	68
민들레	69
목계	70
삼살개	71
황진이	72
원효의 봄	73
늦장마	74
자연과의 만남	75
매미	77
고향	78
어느 늦여름 저녁의 귀가	79
코스모스	80
호접란과 후조의 꿈	81
질경이	82
천기와 슬기	83
어떤 언명	84
추석밑 열사흘 달빛의 기억	85
〈참고문헌〉	86

ABSTRACT

A Study on Ecological imagination and Realistic Spirit

By Kim Young-choel

Dept. of Literature & Cre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is after the 1990s in modern poetry in Korea that poetry works based on ‘nature’ and ‘environment’ appeared in the name of ‘ecological poetry’. The reason why ecological poetry or ecological discussion fully appeared in this period i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became the urgent question in Korean society. Critical voice was increased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logical destruction and various discussion on ‘ecological literature’ was made in the literary world.

It is true that poets mutually responded with nature and learned the wisdom of life from it in the long tradition of lyric poetry. Nature and lyric poetry became a principal origin of poetic imagination. However, ecological poetry rising suddenly after the 1990s has discriminative points from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raditional lyric poetry. I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ure not as the background to convey inner emotion but as natural environment itself and there were many cases which did not result in lyric identification. Moreover, it was this period that poems denouncing and disclosing ecological environment polluted and destroyed due to industrialization were intensively published to bring people to an awareness.

However, as time went by, poets realized the need for more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nature not only as a short-term question or a temporary fashion. The realization led ecological literature not to the complaint of simple

environmental problems or the conveyance of illuminating messages, but to the exploration and restoration of tru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nature and man. It means that not only ecological problems were accepted in the material level, but also ecological imagination became an important power to recognize and shape things. The early 1990s when ecological poetry rose suddenly accords with the period when disputes on ‘realistic poetry’ . The disputes began because of the fall of Eastern Europe and the ebb of ideology. Environmental problems became one of immediate questions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realism that replaces a ideological role. As the realistic spirit of poetry is embodied through close and dynamic interaction between poetic subjects and reality of the day, poets in this period could extend the denotation of realistic poetry through the combination of realistic spirit and ecological imagination.

It was consider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at ecological imagination focused on ‘nature’ was contrary to realistic spirit focused on ‘reality’ . However, since the 1990s, poetic reality or cultural topography has been changed and ecological poetry has had common areas with realistic poetry. It was be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moral depravity, and a weakened community basis as well as political areas appeared as new objects for criticism of reality. Then, unlike traditional lyric poetry, ecological poetry could have critical spirit of reality about nature and environment and realistic poetry and ecological poetry could share a new interface.

The 1990s was the turning point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ecological imagination and realistic spir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ow such changes influenced poets’ creative process. It will contribute to new understanding of the poetry world in the 1990s and provide an important suggestion to explain the process of changing this author’ s poetic world. Since the debut in 『Literary Current』 (Poetry), this author has published five poetry books. In this course, I have strived to actively accept ecological thinking and imagination to overcome the imitation of realistic poetry. This study attempts to select and analyze works which ecological imagination and realistic spirit of poetry are combined in my creative poetry according to the subject consciousness of this study to attach them as data.

I. 서론

한국 현대시에서 ‘자연’ 과 ‘환경’ 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생태시’ 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이 시기에 생태시나 생태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우선 1991년 낙동강 폐놀 유출 사건이나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운동 등 환경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였다. 또한 김지하의 생명사상이 환경운동연합의 결성, 『녹색평론』 의 창간 등도 생태환경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문학계에서도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생태문학’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와 『외국문학』 겨울호 등이 생태환경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1991년 10월에는 창간된 격월간 『녹색평론』 은 한국문학에서 생태환경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성찰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¹⁾

물론 서정시의 오랜 전통 속에서 시인들은 자연과 상호 교감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어 왔으며, 이때 자연은 서정시의 시적 상상력의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자연이 주된 소재가 되고 있는 전통 서정시의 경우 대체로 자연의 풍광을 심미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정서를 덧붙이는 선경후정(先景後情)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자연의 외적인 면과 시인의 내적인 의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과 시적 자아의 동일성을 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이후 대두된 생태시의 경우, 전통 서정시의 자연인식과는 변별되는 지점들을 지니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면적 정서를 전달하기 위한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자연환경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정적 동일화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환경의 구체적인 모습을 고발하고 폭로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들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렇게 비판적 주장이 강한 시들은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면한 생태문제의 위기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응급처치에 가까운 시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단기적 문제제기나 일시적 유행을 넘어 시인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좀더 근원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생태

1)이은봉, 「시와 생태적 상상력」,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53쪽 참조.

문학이 단순한 환경문제의 고발이나 계몽적 메시지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참다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고 회복하는 데로 나아가게 하였다. 모든 생명현상과 사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서는 생태문제를 좀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²⁾ 이는 생태문제를 소재적 차원에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상상력을 사물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생태시가 발흥하던 1990년대 전반기는 ‘리얼리즘시’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 시기에 리얼리즘시 논쟁이 시작된 이유로는 우선 동구권의 몰락과 이데올로기의 퇴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듯 ‘민족문학 위기론’이 대두하였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리얼리즘시의 역할과 창작방법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대신할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 또한 당면한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리얼리즘적 서정시란 시적 주체가 당대의 현실과 긴밀하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시기에 시인들은 리얼리즘적 정신과 생태적 상상력의 결합을 통해 리얼리즘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국문학사에서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상상력과 ‘현실’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즘적 정신은 흔히 상반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시적 현실이나 문화적 지형도가 변화하면서, 생태시와 리얼리즘시 사이에 공동의 영역이 생겨나게 되었다.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도덕적 타락, 공동체적 기반의 약화 등이 새로운 현실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생태시는 이전의 전통 서정시와는 달리 자연과 환경에 대한 현실 비판적 정신을 지니게 되었고, 리얼리즘시와 생태시는 새로운 접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한국시단의 전면에 등장한 생태시의 경향과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성 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의 결합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생태시의 흐름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 속에서 변모해 온 본인의 시세계에 대한 해명을 하는 데도 유용한 분석틀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1950년대 초 농촌과 어촌이 결합된 형태의 마을에서 태어나 공동체적 분위기

2)이은봉, 『시와 생태적 상상력』,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71쪽~73쪽 참조.

에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의 격변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문명과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하는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로 타락한 세태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중심으로 시를 써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경하고 직설적인 리얼리즘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 사유와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 인식과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필자는 1996년 월간 『문예사조』 시 부문으로 등단하여 지금까지 5권의 시집을 상재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본인의 창작의식과 창작방법론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가고자 한다. 이 논문의 논지에 따라 본인의 창작시들 중에서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시정신이 결합된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자료로 첨부한다.

II. 1990년대 이후 생태시와 리얼리즘

1. 생태시의 대두와 전개

1990년대 생태시나 생태문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환경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생태적 의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문학적 성찰이나 형상화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환경운동을 하는 것과 문학적 접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생태시, 생태소설, 생태비평 등 장르에 따라서도 생태적 의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

그 중에서도 생태시에 대한 당대적 흐름과 방향을 잘 정리한 연구 성과들이 1990년대 이후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은봉의 『시와 생태적 상상력』, 김육동의 『생태학적 상상력』, 신덕룡의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생명 시학의 전제』, 김종철의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등은 그 대표적인 저작들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책제목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태시’나 ‘자연시’ 등의 장르 명칭을 확정해서 쓰기보다는 ‘생태(학)적 상상력’ ‘생명 시학’ ‘생태적 인간’ 등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편의상 ‘생태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범주가 매우 모호라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태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재나 주제의 차원이 아니라 생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있다.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그 층위는 매우 다양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생태계의 위기가 비롯되었다고 보는 사회학적 분석이 있는가 하면, 생태계의 위기는 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도덕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대안이나 극복방안도 각기 달라서 사회구조의 실제적 개혁뿐 아니라 의식과 감수성의 혁명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옥동은 환경위기나 생태계 위기를 다루는 시적 담론과 관련하여 이를 환경문학, 생태문학, 녹색문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환경문학과 생태문학을 함께 아우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환경위기와 관련한 스펙트럼 전체를 포함하는 문학이 바로 ‘녹색문학’이라고 지칭하였다.³⁾ 그런데 같은 녹색이라 해도 그 채도와 명도가 저마다 다르듯이 녹색문학 역시 생태의식을 일깨우는 정도와 방법은 서로 다르다. 주제의식이나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비유나 상징 등의 우회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 녹색문학은 크게 ‘연성’ 녹색문학과 ‘강성’ 녹색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연성 녹색문학이 생태의식을 묵시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을 말한다면, 강성 녹색문학은 생태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문학을 말한다.

김옥동은 이 가운데서 연성 녹색문학이 강성 녹색문학 보다 한 수 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생태주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나머지 강성 녹색문학은 자칫 선전구호에 그칠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문학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을 이데올로기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으려는 문학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리얼리즘이건 비판적 리얼리즘이건 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건 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이 흔히 그러하다고 지적한다. 문학이 구체적인 역사적 시간과 사회적 공간의 산물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시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학작품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그의 주장이다.⁵⁾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생태적인 시의 궁극적 지향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3) 김옥동, 「시적 상상력과 생태학적 상상력」,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37쪽.

4) 김옥동, 위의 책, 25쪽.

5) 김옥동, 위의 책 25쪽.

제시한 경우도 있다. 신덕룡은 환경문학이든 생태문학이든 궁극적으로는 생명사상에 맞닿아 있으므로 이를 아우르는 범주로 ‘생명시’라는 명칭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생태시’라는 가장 일반적인 장르 명칭을 사용할 것이며, 이 명칭에는 ‘자연시’ ‘생명시’ ‘환경시’ 등이 모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생태계의 모습과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라면 모두 ‘생태시’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생태시와 리얼리즘의 접점

1990년대 전반기는 ‘리얼리즘시’ 논쟁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족문학 위기론이 제기되었고, 리얼리즘 진영에서는 이를 타개할 새로운 정신과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창작과비평』(1990년 겨울호)이 마련한 좌담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에서 백낙청은 “공해문제, 생태환경문제가 워낙 절박해졌”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들을 문학적으로 다루는 일이 “민민운동이 그야말로 전지구적인 시각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일상생활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밀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⁷⁾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리얼리즘과 생태문제의 접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한국 시단에 부상한 생태시와 더불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리얼리즘시 논쟁에 대해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얼리즘시 논쟁은 1989년에 창간된 시전문지 『오늘의 시』에 실려 있는 좌담 「시의 정치성과 리얼리즘의 가능성」과 최두석의 「이야기 시론」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로 좌담 「오늘의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과 오성호, 김형수 등이 평론이 발표되면서 시의 리얼리즘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본격적 논쟁으로 접어들었다.⁸⁾ 이러한 논쟁은 변화된 현실 속에서 시의 현실 참여와 정

6) 신덕룡, 「생명문학 논의의 흐름」, 『환경 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화사, 2004. 145쪽.
 7) 백낙청, 좌담 「생태계의 위기와 민족민주운동의 사상」, 『창작과비평』 1990년 겨울호.
 8) 김철 백진기 복거일 홍정선(좌담) 「시의 서정성과 리얼리즘의 가능성」, 『오늘의 시』, 창간호, 현암사, 1989.
 최두석, 「이야기 시론」, 『오늘의 시』, 창간호, 현암사, 1989.

치성을 새롭게 모색하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생태시와 리얼리즘, 서정시와 리얼리즘의 관계 등에 대해 좀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 논문이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의 회통에 주목하면서 그 양자가 중요한 접점을 형성하는 1990년대 전반기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논문에서 생태시나 리얼리즘시의 개념과 범주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것이 갖는 고유성을 운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정작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적 정신과 생태적 상상력이 대립적인 것은 아니며, 한 작품이나 한 시인에게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성취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시적 성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시인의 뛰어난 감각과 감수성, 상상력 등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사회현실의 꺾어진 형상화는 의당 시 장르의 속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시적 성취에 부응하지 못하는 리얼리즘의 성취란 애당초 가능할 수 없다”⁹⁾는 최두석의 지적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또한 “리얼리즘적 시정신은 시적 주체와 세계 현실의 긴밀하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수준에 오른 작품일수록 시정신은 시인의 감각과 체험이 육화된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논리나 사상의 차원을 넘어선다”¹⁰⁾는 말에서처럼, 리얼리즘적 시정신이란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현실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시인의 감각이나 체험의 육화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현실을 주로 다루던 1980년대의 민족문학이나 민중시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만큼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가 중요한 현실적 사안이 되었음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생태시와 리얼리즘시가 이러한 접점을 공유하면서 주고받은 영향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생태시의 경우, 몇 개의 단계나 유형을 보여주는데, 환경 파괴를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대응하는 초기 단계로부터 환경 파괴의 원인을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로 점차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아르네 네스가 분류한 명칭을 빌어 설명한다면, 표층생태학에서 심층생태학으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준섭 김형수 성민엽 최두석 황지우(좌담), 「오늘의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오늘의 시』 통권 4호, 현암사, 1990.

오성호, 「시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문제에 관한 시론」, 『실천문학』, 1991년 봄호.

김형수, 「서정시의 운명을 밝히는 사실주의」, 『한길문학』, 1991년 여름호.

9) 최두석, 「시세계의 다양성과 리얼리즘」, 『시와 리얼리즘』, 창작과 비평사, 198쪽.

10) 최두석, 「리얼리즘의 시정신」, 『시와 리얼리즘』, 창작과 비평사, 1996, 33쪽 재인용.

1970년대 노르웨이 철학자 아르네 네스는 표층생태학에 맞서 심층생태학 이론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표층생태학이 제도권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학으로 정부나 산업체 그리고 대학 같은 곳에서 당면한 환경문제나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다면 심층생태학이란 글자 그대로 좀더 심층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생태학으로 인간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생물평등주의를 앞세운다. 네스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환경문학이 표층적인 환경문제를 다룬다면 생태문학은 심층적인 환경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서 생태문학은 좀더 형이상학적인 태도를 취한다.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생명평등주의를 내세운다든지, 오늘의 위기를 가져온 현대 과학과 기술 문명을 비판한다든지, 자연의 소중함이나 생태의식을 일깨운다든지 하는 문학은 환경문학보다는 생태문학에 가깝다. 드러내놓고 고발문학적 성격을 띠느냐,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느냐에 따라 환경문학이 되기도 하고 생태문학이 되기도 한다.¹¹⁾

이 글에서 표층생태학이 인간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심층생태학이 생물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 필자는 주목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생태시를 이 두 가지 양태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태계 파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상황을 제거하거나 개선해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시가 표층적 차원의 생태시라면, 생태계의 문제를 좀더 근원적으로 사유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생태시가 심층적 차원의 생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향의 생태시에 뚜렷한 우열을 매길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직설적 비판을 지양하고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영성적 교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을 본 논문은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III장에서는 기성 시인들의 생태시를 중심으로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회통을 이루어내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그에 이어 IV장에서는 본인의 창작시를 중심으로 인간중심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생명평등주의적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직설적 비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성적 교감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11) 김옥동, 위의 책, 37-38쪽.

Ⅲ.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의 회통

1.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직설적 비판

1990년대 이전에 민중시나 리얼리즘을 쓰던 시인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환경오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신경림 시인도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적인 시인인데 다음 시에서 이런 암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봄이 되어도 꽃이 붉지를 않고
 비를 맞고도 풀이 싱싱하지를 앓다
 햇살에 빛나던 바위는 누런 때로 덮이고
 우리들 어린 꿈으로 아롱졌던 길은
 힘겹게 고개에 걸려 처져 있다
 썩은 실개천에서 그래도 아이들은
 등 굽은 고기를 건져올리고
 늙은이들은 소줏집에 모여 기침과 함께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병든 돼지고기를 싸고 있다
 한낮인데도 사방은 어스름처럼 어둡고
 골목에는 고추잠자리 한 마리 없다
 바람에서도 화약 냄새가 난다
 종소리에도 가스 냄새가 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꽃과 노래와 춤으로 덮였던 내 땅
 햇빛과 이슬로 찬란하던 내 나라가
 언제부터 죽음의 고장으로 바뀌었는가
 번쩍이며 흐르던 강물이 시커멓게 썩어
 스스로 부끄러워 몸을 비틀고
 입술을 대면 꿈틀대며 일어서던 흙이
 몸 가득 안은 죽음과 병을 숨기느라
 웅크리고 도사리고 찼찼매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죽음의 안개가 이 나라의
 산과 들을 덮게 되었는가
 쓰레기와 오물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신경림, 「이제 이 땅은 썩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1·2연¹²⁾

이 시에서 감지되는 상황은 오직 절망뿐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환경오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시인은 직설화법으로 생생하게 전하면서 뼈아프게 탄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황폐화되어가는 환경이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도처에서 실제로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시를 읽고 나면 마음이 위축되고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어찌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더 이상 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지는 이 땅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함으로써 현상의 제시나 그에 대한 탄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들기도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죽음의 고장으로 바뀌었는가” “언제부터 죽음의 안개가 이 나라의 산과 들을 덮게 되었는가” “쓰레기와 오물로 이 땅이 가득 차게 되었는가” 등 시인의 문제 제기가 의문문으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정적인 어조가 풍부한 시적 해석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여 있는 물 옷자란 풀이 썩고
 냄새는 떼지어 몰려다닌다
 벌써 며칠째 소로를 따라 걸어온
 달빛 무안한 얼굴로 되돌아 간다
 기미와 화장독 오른 그녀의 낮짚에
 가래를 뱉듯 돌을 던져본다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소란은 이내 가라앉고
 우르르 몰려간 냄새에 밟혀
 먼 마을 꽃들이 진다
 아무도 호수의 깊이를 모른다

12)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창작과비평, 1998.

—이재무, 「아무도 호수의 깊이를 모른다」¹³⁾ 전문

이 시는 썩어가는 “호수를 화장독 오른 여인”에 비유하여 환경오염의 실태를 고발한 작품이다. 생활폐수와 산업 폐기물등으로 수면이 덮혀 있는 크고 작은 저수지와 호수는 도회 또는 공장지대에서 쉽게 발견되는 풍경이다. 호수를 찾아온 달빛이 무안한 얼굴로 되돌아가야 할 지경으로 호수는 물빛을 내보이지 못한다. 더러워서 “가래를 뱉듯 돌을 던져”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돌이 물에 떨어지지 않고 쓰레기 위에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쓰레기로 뒤덮혀 진동하는 썩는 냄새에 먼 데 있는 마을의 꽃들조차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생태환경의 실상인 것이다. 물이 맑으면 호수의 바닥이 흰이 보이겠지만 아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이것이 몸살을 앓고 있는 병든 지구의 모습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를 읽고 난 느낌은 웬지 개운하지 않다. 이는 온갖 쓰레기로 뒤덮혀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심각한 호수의 오염 실태를 “화장독 오른 여인”의 얼굴에 비유한데서 오는 비유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억지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게 분명해!
 자궁 속에 고무인형 키워온 듯
 무늬아를 낳고 산모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수리 털들을 하루종일 뽑아낸다.

—최승호, 「공장지대」¹⁴⁾ 전문

이 시는 온갖 오염물질로 가득한 ‘공장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늬아’ 출산이라는 끔찍한 장면은 환경오염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무늬아를 출산한 산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13) 이재무, 『주름 속에 나를 다린다』,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4.

14) 최승호, 『회저의 밤』, 세계사, 2000.

“저 굴뚝들과 나는 간통한 게 분명해!” 라고 절규하면서 아이의 머릿 속에 정말 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루종일 아이의 정수리 털들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은 비단 공장지대가 아닌 일상 속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폐아, 기형아 등의 출산이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시적 형상화도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 생태주의 시에서 흔히 차용하는 그로테스크한 기법은 파괴된 생태계의 파편들과 그를 초래한 인간의 이질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생태적 상상력은 대상간의 이질성 결합을 통하여 동질성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대상간의 충돌은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면서 부조리한 현실 상황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오늘의 자본주의 후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삶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이처럼 위기의식으로 절박한 상황은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써 초기 생태시의 경우 각종 공해로 오염되고 파괴된 생태환경의 실태를 널리 알려 좀더 확실히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시는 단기적인 시적 성취에 급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정서를 담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조는 부정적이며 경직되어 있으며 직설적이고 주관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영성적 교감

생태시에 있어서의 서정성은 문제의 핵심을 감성에 호소하여 구성원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근원적인 치유 방법을 대안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어조는 좀더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아니마적 어휘로 긍정과 가능성을 전제로 설득적인 화법을 구사한다.

환경오염의 위기적 상황을 보다 근원적으로 파고들어 그 대안을 제시되고 있는 시들은 객관적이며, 순리적이며, 거시적 안목을 토대로 한다. 이를 테면 자연과 인간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사랑, 자비, 인 등 정적요소를 기반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우회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우리 한국문학에 생명사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김지하의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내 나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지구에 생명 생긴 뒤 삼십오억살

우주가 폭발한 뒤 오십억 살

아 무궁

나는 끝없이 죽으며

죽지 않는 삶

두려움 없으라

오늘 풀 한포기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리라

— 김지하 「새봄·8」¹⁵⁾ 전문

이 시의 주제는 생명의식이다. 지구가 생성된 지 삼십오억년, 우주가 폭발한 지 오십억살이라는 무한대의 숫자에 놀라면서도 또한 그러한 나이를 먹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에 경도된다. 그야말로 무궁한 세월을 살아온 지구체인 것이다. 이 지구 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온갖 생명이 생멸을 반복하여 왔을지 헤량하기조차 어렵지만 끝없이 죽음을 맞으면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서 또 한없이 이어져가고 있으니 결국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무궁한 땅 위에 생명을 건강하게 기르고 가꾸은 일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떠맡은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죽음도 두려움 없이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비장한 절의까지 느껴진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 자신의 신체와 행위 하나하나에도 더욱 이웃과 다른 생명까지도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또한 타자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는 이치를

15)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숲, 1994.

시적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 중시 사상의 파급은 지구의 건강한 보존과 계승에 있어서 어떠한 계몽 운동보다도 심도 있게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어 근원적인 사고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이 시의 마음이며 생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랏빛 엉겅퀴꽃 속에
 꿀벌 한 마리 파고들었네
 손끝으로 건드려도
 엉겅퀴 속 꿀벌 나오려 하지 않네
 시켜서 이루어질 리 없는 전일(全一)한 합일(合一)이여
 하얀 망초꽃도 그 곁에 피어 있어
 초여름 햇살조차 내려앉으니
 나 또한 끼어들 작은 공간이여
 나 있어 이 산야에 흠이 없다면
 꽃과 벌 사이의 아늑한 길에
 오래도록 발 멈춰 나도 서 있네

-김명수, 「작은 공간」¹⁶⁾ 전문

이 시에는 생명평등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식물인 보랏빛 엉겅퀴와 동물인 벌이 이루는 합일이 바로 그것이다. 식물인 엉겅퀴는 벌에게 양식인 꿀을 주고 벌은 엉겅퀴의 종족 번식에 기여해주는 공생의 관계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시켜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합일(合一)’이라는 대목이다.

태초에 대자연은 그렇게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합일을 이루며 살아왔다.

인간은 그동안 이러한 수평적 생명관계를 파기하고 모든 자연 위에 군림하며 전횡을 휘둘러 왔다. 다시 말해 자연 앞에서는 죄인이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나 또한 끼어들’ 고 싶은 공간이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 대자연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꽃과 벌 사이의 아늑한 길’에서 인간 역시 그들과 하나

16) 김명수, 『바다의 눈』, 창비, 1995.

가 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별 수줍어 몸 오므렸다가
 해 지면

빠알강
 노오랑
 화알짝 웃던 그대

밤새도록 무슨 사연 있었길래
 꽃새끼, 검은 새끼
 때 되어 쏟는가
 씨젓 가득 채워 낳는가

이웃집 할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리 틈새에서 함박웃음으로
 손자 받아내듯 받는 이 있다
 다칠세라 조심조심 받는 이 있다

오매, 내 새끼
 오매, 내 새끼
 하며.

— 조태일, 「분꽃씨」¹⁷⁾ 전문

이 시에는 분꽃씨를 받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종족보존을 위한 씨를 맺는 식물과도 같이 인간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명 중시의 마음이 진정한 생태적 세계관이며 에콜로지의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다칠세라 조심조심 받드는 마음은 사랑과 자비의 포용이 정신이 없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다. 화자가 이 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연을

17) 조태일, 『조태일전집:시2』, 창비, 2009.

대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다. 이 시가 보다 가깝게 다가오고 감명을 주는 것은 분꽃씨를 받는 마음을 우리네 인간의 삶, 그 중에서도 생명을 출산하는 일에 대비시킴으로써 동질성을 확보한 데 있다고 본다.

이는 생명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고귀한 마음일 것이다.

흰구름 등실 떠가는 저 높푸른 하늘
 쉬임없이 흘러가는 강물
 내가 딛고 있는 발 밑의 흙덩이가
 바로 이 어미다
 아, 그 말씀 듣고 새겨보니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내 어머니 아닌 것이 없어라
 진작 어머니 품에 안겨서도
 그걸 몰랐으니
 나는 얼마나 바보천치인가

—이동순, 「어머니의 품」¹⁸⁾ 전문

이 시에서 시인의 눈에 비치는 자연은 어머니 아닌 것이 없다. 봄에 움터오는 새싹, 아들딸들의 해맑은 눈빛과 구름이 흘러가는 푸른 하늘과 쉬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딛고 있는 발 밑의 흙덩이까지 심지어는 네 가슴 속의 말까지 어미라는 것이다.

이 시는 불교의 윤회사상(輪廻思想)을 기저로 하고 있지만 삼라만상, 유무형의 형상까지도 순수하고 착한 것이면 그 모두 어머니로 보는 마음은 화엄경의 핵심사상인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의 불교적 사유(思惟)를 보여준다.

특히 결구에서 “진작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도 / 그걸 몰랐으니 / 나는 얼마나 바보천치인가” 라는 되물음은 오늘날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경문(警文)이 되고 각성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 시는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에 맞서 거기에 식생하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18) 이동순, 『봄의 설법』, 창비, 1995.

부터 구해내기 위해 오랜 기간 부산시청 앞에서 일인 단식투쟁을 벌였던 지율스님의 모습을 보고 쓴 조용미의 시다.

지율(知律), 계율을 안다

거짓되고 그릇되게 행함을 막는 율법을 안다는 이 말,
참으로 무서운 말 아닌가

내가 아는 한 비구니의 범명이 지율이다
천 명의 성인이 나온, 천 가지 연꽃이 핀 것 같은
천성산(千聖山)
아래 내원사에서 조용히 수도하며 지내던
눈매가 그윽하고 맑고 단단한 사람
그가 깊은 산 속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만 산다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산다는 꼬리치레도롱뇽을 살리려고
생명을 내놓았다

형상이 있거나 없는 모든 것을 화엄이라 한다는데
산정에 펼쳐진 늦가을 화엄벌은 흰 눈이 덮인 듯 억새의 물결도 장엄해
관통 터널 공사도 도롱뇽 소송도 다 잊고 사람들 탄성을 지른다

이 화엄벌의 늪에 지율의 친구 도롱뇽이 산다

갈색 등에 노란 점무늬가 별처럼 펼쳐져 있는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꼬리치레도롱뇽은 겨울잠에 들었나
화엄늪의 화엄세계가 바로 너의 우주인데
팔색조야 황조롱이야 청딱다구리야 삼광조야
천성산은 천성산만의 근심이 아닌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지율(知律), 아득해져가는 부산시청 앞에 앉아 곡기를 끊고
도롱뇽 수를 놓고 있다

한 땀 한 땀의 바느질로 못 생명을 살리려 하고 있다

— 조용미, 「도롱뇽 수를 놓다」¹⁹⁾ 전문

이 시는 만물유생(萬物有生) 동체자비(同體慈悲)라는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고자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공사에 반대하는 지율(知律)이라는 비구니 스님의 단식투쟁을 시의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못 생명을 앗아가는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저항하여 일개 비구니스님의 몸으로 부산시청 앞 광장에 홀로 앉아 단식투쟁으로 저항하고 있는 지율 스님의 의연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고 쓴 작품이다.

‘지율(知律), 그는 계율을 안다’ 는 말로 시작된 이 시는 한 생명을 던져서라도 못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대자대비한 불교의 화엄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지율 스님의 지고지순한 생명보호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경구의 마지막 연, 끝행의 ‘한 땀 한 땀의 바느질로 도롱뇽을 수놓고 있’ 는 모습은 간디의 무저항 정신을 연상케 한다.

위에 예시한 시편들(김지하의 「새봄·8」, 김명수의 「작은공간」, 조태일의 「분꽃씨」, 이동순의 「어머니의 품」, 조영미의 「도롱룡 수를 놓다」 는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서정적 생태시로 독자의 감수성에 호소하여 시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

서정시의 세계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생태적 상상력을 발동하게 된다. 자연의 현상에서 지혜를 얻고 객체와 주체가 혼용하는 세계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IV. 창작시 분석

오늘날 인간이 갖게 되는 불안과 권태는 고향(자연)의 상실로부터 기인한다.

19) 조용미, 『나의 별에서 핀 앵두나무는』, 문학과지성사, 2014.

이는 인간의 심성을 이루는 자연이 마구 파괴되고 훼손되는 상황에서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 심리상태이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은 현대문명에 대한 부정적 비판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전국토가 개발이라는 명복으로 파괴되고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도 설마하니 벽촌인 내 고향까지 그렇게 파헤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고향을 잃어버린 신세가 되고 보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 시는 파괴된 고향산천에 대한 그러한 상실감을 노래한 것이다.

고향에 가도
내 추억어린 고향은 없었다

포크레인의 등살에
성한 곳 하나 없는 산과 들

죄없이
수평선 끝으로 내쫓긴 바다에
사람들은 혼령을 빼앗긴 허수아비처럼
건들바람이 부는 노래에 팔려
곡조를 타지 못한 헛춤을 추고 있었다

내 어린 추억은 그만 슬퍼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해오라기처럼
허공을 배회하다 돌아와야 했다

—창작시 「잃어버린 고향」 전문

고향은 자연의 또 다른 이름이며,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는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정신적 은신처로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다.

이 시를 쓴 시점은 정부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던 1990년대 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필자의 고향은 충청도의 바다가 인접한 농촌마을이었는데 농업과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필자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바다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학교가 과한 뒤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가는 줄 모르고 뛰놀던 놀이터였다.

그런 추억이 어린 고향이 석유화학단지로 지정되면서 산과 들판은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서기 위해 포크레인에 파헤쳐져 흉물스런 물골을 하고 있었고, 바다는 간척사업으로 막혀, 찾을 때마다 반겨 맞아주던 바닷새도 모두 떠난 텅 빈 빨밭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여, 개흙 먼지만 폴폴 날리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엔 몇 푼 보상을 받아 쥔 이들과 투기꾼들이 어우러져 헛꿈을 부풀리며 흥청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성성한 백밭을 이고 이제사 오시는 겐가
장성곡 뿌리며 온다고 마다할 나 아니네만
못난 고향에 늙은 부모 두고
호의호식하겠다고 가더니
빠 속 시린 날에 그리워지던가
죽음 앞에 마땅한 정처가 없던가
어머니 아버지 외쳐 부르며
철든 듯 눈물 흘려봐도 다 소용없네

고향이란
태평양에서 남대천으로 사력을 다하여
귀소하는 연어떼와도 같이
그저 일 년에 한 번만이라도
명절 맞아 아우성치며 귀성하는 인파에
섞여서라도 왔다가 가면
흐뭇해 하는 곳이라네

—창작시 「때 늦은 귀향」 전문

이 시는 명절마다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귀성전쟁에 슬한 고생을 하며 찾아간 고향에서 백밭이 성성하여 고향을 찾은 노인 한 분을 만나 그동안 객지에서 모진 고생을 했던 얘기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면서도 참고 지냈던 얘기 끝에 지금이라도 고향에서 받아만 준다면 내려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쓴 작품이다.

사람은 아무리 객지에 나가 성공을 이루었어도 죽음을 앞두고 되면 심중팔구는 어릴 적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양지바른 동산에 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이 주제다.

남북 분단으로 많은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고향 상실의 트라우마가 가슴 깊이 내재하여 있을 것이다. 또 한편 가난한 농촌을 떠나 도회로 나갔다가 자의든 타의든 고향을 등지고 사는 실향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향은 태평양에서 강원도 남대천으로 귀소하는 연어의 본능과도 같이 인간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보릿대 타는 연기 코 끝 간질이고
 산밤나무꽃 보리누룽지처럼 익어가면
 등나무, 화려한 자색 등불이 가난한 마을을 환하게 밝혔다

육십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김씨는 그래도 칠월이 좋았다
 텃밭에서 풋고추 한 주먹, 오이 한 둘 따다가 찬물에 밥 말아,
 고추장 된장에 찍어 먹어도 한 끼 식사가 간단히 해결되고,
 땀 흘려 김 매고 돌아와선 옷통 훌훌 벗고 지하수 바가지로
 흠뻑 뒤집어 쓰고 나면 오장육부까지 서늘해서 좋았다
 저녁 마당가,
 따다닥거리며 타는 보릿대 위에 생쭈 한아름 덮어두고
 밀짚방석 펴고 앉아 감자, 옥수수 찌다 놓고,
 팔순 노모와 모자지정 나누고
 별령 누워 벌 듯 말 듯 끝내 숨어버린 별 하나 찾아보다가
 팔덕선으로 얼굴 가린 채 잠들면,
 너른 나래를 활짝 펴고 공작의 화관을 머리에 인 자귀 나무 아래
 어머니를 빼닮은 우렁각시가 배시시 웃으며
 손을 내밀곤 했다

—창작시 「김씨의 칠월」 전문

위 시는 육십 넘도록 장가를 갈 수 없는 농촌의 현대문명을 우회적으로 개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가져온 자본주의 현대산업사회는 공해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가족사회를 핵가족화하고 농어촌에도 많은 문제를 파생시켰는데 그 중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독거노인문제는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

을 것이다.

한여름 전에 장마가 오는 까닭은
 삼복더위를 감당하라고 미리서 비를 보내는 것이라는
 고향 어르신들의 말씀은 천심을 이르는 말이다
 장마가 끝난 뒤 대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햇볕에 내다 말리고,
 남아나는 수액은 모두 강으로 흘려보낸다

홀로 계신 팔순 어머니가 걱정되어
 불현듯 찾아가는 고향 길
 동네 어귀에 서자
 시냇물도 별떡 일어나 손을 내밀고
 산마루에 키 큰 상수리나무도 머리채를 흔들며 좋아했다
 자식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랴 하면서도
 한나절도 못돼서 뒤돌아 나오는 고샅길,
 눈시울 그렇그렇한 어머니 얼굴이 발길마다 밟혀도
 길옆에 흐드러진 개망초는
 마누라와 새끼들 눈빛처럼 길을 재촉하고
 사열받는 병사처럼 줄지어 선 옥수수 밭둑길 따라
 옷자란 토란들은 잘 가라 손을 흔드는데
 뻐꾸기란 놈은 한사코 가지 말라고 울어짜니
 해발간 자귀꽃 여린 꽃술이 궁벽한 내 안의 눈물로
 자꾸만 솟아오른다

—창작시 「이심전심以心傳心」 전문

이 시는 이른 장마가 끝난 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가는 50대
 가장의 심경을 고향의 자연물인 시냇물, 상수리나무, 개망초, 옥수수, 토란, 뻐꾸기
 자귀꽃 등의 외형적 특성과 결부시켜 형상화한 작품이다.

“서정시에서 사랑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다. 서정시에서의 사랑은 우주에 존재하
 는 모든 사물과 관념이 인간과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이상의 신비적 존재로 거듭나는 경우도 적잖다.(이러한 점에서 생각하면 시인

은 곧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서정시에서 흔히 수사적 장치로 인식되는 의인법·활유법 등이 단순한 수사적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도 실제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시의 세계는 다름 아닌 의인간적(疑人間的)세계이고, 시의 세계관은 의인관적(疑人觀的)세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²⁰⁾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 불에 데인 나방처럼

제멋대로 몰려다니며 물폭탄을 퍼부어대는 마적 때 같은 구름이 그렇고
 천지가 개벽해도 오로지 전의만 불지르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집단이 그렇고
 하라는 일은 팽개쳐 두고 정권의 먹살만 잡으려 하는 치정꾼들이 그렇고
 털끝만 건드려도 두 눈 부릅뜨고 쌍심지를 돋구는 이웃들이 그렇고
 무슨 마력에 감전된 듯 스마트폰에서 손 떼지 못하는 대세가 그렇다

세포 분열을 조장하는 마스크에 놀아나는 광기의 도가니 속엔
 에미 애비도 없고, 자식 새끼도, 남편도 아내도 없다
 내 한 몸 호의 호식하고 편하면 그만인 세상
 인륜은 거지발싸개처럼 버려져 안중에서 자꾸만 흐려져 가고 있다
 오늘은 마누라와 말다툼을 했는데 믿고 살던 마누라도
 어느 새 이 병에 깊숙히 감염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늘이 미쳐가니 땅도 미쳐가고,
 바다도 미쳐가고, 바람도 미쳐가고, 꽃들도 미쳐간다
 문명도 미쳐가고, 내 마누라도 미쳐간다
 아니 나도 덩달아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때
 산 속 음지에 해뜰 발그레하게 무리져 핀 진달래꽃을 보고 문둥이는
 눈이 뒤집혀서 천진한 아이를 꼬여다가 간을 빼 먹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던가
 허리띠 졸라매며 보리바십에 비지땀 흘리면서도

20) 이은봉, 「자본주의 근대와 서정시의 역할」,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128~129쪽.

하늘에 순종하고, 조부모 하늘처럼 섬기며
 인륜을 배개삼아 살던 때가 있었더라 그때는
 세 번 피고 지면 쌀밥 먹을 수 있다 하여 선망의 눈길을 보냈던 백일홍,
 멀쩡한 아이도 간지럼을 많이 태우면 미치고 만다 했던가
 가는 데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사랑대는 꽃송어리
 오늘은 그 꽃들이 진달래꽃처럼 무서워 무서워
 - 창작시 「백일홍」 전문

이 시는 1950년대 가난과 굶주림 속에 보릿고개를 넘던 농촌에서 세 번 피고 지면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배고파 우는 자식을 달래던 백일홍(일명 자미꽃, 또는 간지럼 나무)과 당시 성행하던 문둥병자들이 어린아이의 간을 빼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로 아이들을 진달래꽃을 흔들며 산으로 유인해서 간을 빼먹는다고, 함부로 집 밖에 나가 놀지 못하도록 단속하던 루머 같이 떠돌던 말을 모티브로 삼았다. 당시 아이들에게 큰 공포심을 가져다 준 일 때문에 지금도 백일홍과 진달래는 배고프던 시절의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때 그 시절엔 비록 가난하기는 했지만 천륜과 인륜이 서 있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지금처럼 풍요 속 초조와 불안 같은 정신적 빈곤은 없었다. 그저 하늘이 주시는 대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았다. 쌀밥도 먹기 싫어 투정부리는 이즘은 어떤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은 마구 잡이로 파괴되고 산업사회가 쏟아낸 각종 유해물질은 환경을 오염시켜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륜은 땅에 떨어져 인간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 않은가.

이 시에서 백일홍은 뱀처럼 허물을 벗으며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문명’이라는 괴물을 형상화하여 급변하고 있는 현대문명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문명이 가져온 기상이변은 국지성 소나기 구름을 ‘마적떼’ 로, 70년 세월이 지나도록 전쟁에만 광분하고 있는 북한 집단을 ‘수수께끼’ 로, 뽑아놓기만 하면 불쌍사나운 썸박질이나 일삼는 정치인들을 ‘치정꾼’ 들로, 스마트폰에서 잠시도 손 떼지 못하는 군상들을 ‘대세’ 로 풍자하면서 현대문명의 병폐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쭈글쭈글한 하늘이
 고통스런 얼굴로 힘없이
 내려다 보고 있다

암만 보아도 예삿일이 아니다
 건듯하면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을 앓고
 비틀비틀 몸을 가누지 못하기 일쑤다

망령이 난 듯
 난 데 없이 태풍을 불러와 머리채를 잡고
 설움에 겨운 듯
 지구가 떠내려가라 울기도 하고
 철모르는 어린애 마냥
 눈 세례를 퍼부어 놓고 깔깔 웃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날은
 쪽빛 강물에 뚫단배를 띄워놓고 쟁하고 웃었다
 어제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던 일은
 알 바 없다

모두가
 그렇게 팽개쳐 놓고
 제 살길만 찾은 너희 탓이라며

—창작시 「늪은 하늘」 전문

이 시의 화자는 대기 오염으로 찌든 ‘하늘’을 지켜보고 있는 객관적 관찰자이다. 산업시설인 공장에서 내뿜는 일산화탄소와 자동차의 매연, 난방으로 인한 이산화 탄소, 동물들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질소가스 등으로 구멍 뚫린 하늘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다가 늪대로 늪어 쭈글쭈글해져 버렸다. 그 권위와 능력은 상실한 지 오래다.

오늘의 하늘은 치매에 걸린 노인마냥 자정능력과 조절능력을 잃어버린 하늘은 이제 더이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언제 어떤 재해로 닥쳐올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모두가 하늘의 탓도, 바다의 탓도 아닌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인과응보적 결과라는 데 있다. 문제는 한번 훼손된 오존층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앞으로 닥칠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물딱지게 버티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고
 귀에 못박히도록 들어온 훈육 탓에 씨알조차 험상궂다
 지심 깊이깊이 다짐하고 뭉툭한 고개를 내밀고 전후 좌우를 살핀다
 햇고 높아진 날엔 그 본성에 불을 지르고 소낙비에 떡감으며 장담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창공에 오르고 말리라고
 등나무같이 몸통을 가다듬고 사방에 매과를 보내어
 닥치는대로 거머쥐고 달달 죄면서 영역을 넓혀갔다
 욕망은 하늘에 닿았으나 반역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은밀하고도 왕성하게 별을 닮은 꽃과
 위장술에 능한 달팽이까지 동원하면서 무장을 해왔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

섭리를 거스른 죄,
 다같이 자폭해야 할 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창작시 「여주」 전문

위 시의 모티브는 ‘여주’다. 몇 해 전 당뇨와 다이어트, 기생충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친구가 갖다 준 몇 알의 씨앗을 옥상의 텃밭에 심었더니 거짓말 같이 싹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하게 퍼지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신기하여 날마다 일과처럼 물을 주며 덩굴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주도 세워주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는 습성에 맞추어 옥탑방 지붕 쪽으로 줄도 매주었더니 마치 등나무 같이 그늘을 형성하며 왕성한 성장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육화하여 인간의 욕망과 삶을 여주의 성장과정을 알레고리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주는 덩굴손 식물로 무엇이든지 거머쥐고 독자생존의 야망을 펼쳐가는 것이 오늘날 이기주의적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끝없는 욕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때가 되면 더 이상의 욕망은 접어야 한다. 지나친 탐욕은 파멸을 부르기 때문이다.

외형이 마치 수류탄을 닮은 열매는 빨갭게 익으면 스스로 터져 파편 같은 씨를 쏟아내는데 수류탄을 터트려 자폭하는 모양새와 흡사하다. 이는 오늘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오만하게 살아온 인간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길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분석한 시들이 인간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현실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데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좀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생명현상을 관찰하고 생태적 상상력을 좀더 심층적으로 탐구한 작품들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시들에서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생명평등주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에서도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 우회적인 전달방식이 쓰이고 있다. 이때 생태적 상상력은 서정성과 결합하면서 만물이 인간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모습으로 구현된다.

두류산 골짜기에 해빙의 물소리 들리자
 일찌감치 바다를 건너와
 꽃망울을 희롱하던 남풍은
 동풍冬風의 호된 질타에 자라목이 되어
 산 속 낙엽 밑으로 잠입한다

한낱 쥐구멍이 거대한 방죽을 무너뜨리듯
 남풍은 꿈지락거리던 씨앗들을 부추겨
 눈보송이를 녹여내고 꽃을 피워냈다

이들을 바람꽃이라 부른다

지리하고 답답한 겨울의 담장을 헐고
 꽃바람이 온누리를 활보하게 된 것도
 그실 바람꽃 덕분일 것

—창작시 「바람꽃」 전문

이 시는 계절의 순환과 생명현상을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1차적 의미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도 겪으며 일어서는 봄을 형상화하여 봄이 오는 과정과 꽃이 만발하는 화춘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정작 전하고자 하는 2차적 메시지는 모든 생명현상이 결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사전 준비와 노고에 의해 인과응보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성찰을 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면 세상 어떤 사변의 이면에는 반드시 원인 행위가 있으며 이는 작은 것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추구

하는 자유, 평화, 행복 같은 것도 준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바람꽃’ 즉, 봄바람(남풍)이 피워내는 꽃을 알레고리로 남풍, 꽃, 쥐구멍, 동풍, 꽃바람 등을 육화하여 시적 감흥을 유발하고 있다.

너구리 같은 바람, 경중경중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논뜰을 휘젓고 다닌다

십칠 세 남자의 삼단 머리같이
 일렁이는 검푸른 물결
 개구장자들이 들추는 치맛자락을
 햇살은 썩싸게 파고들어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골고루
 애무하고 있다

바람과 햇살의 열렬한 사랑에
 칠월의 논뜰은 숨이 가쁘다

추석무렵이면 알알이 영글어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여 놓는 것이
 햇볕만이 아니었다

—창작시 「너구리 바람」 전문

이 시 역시 앞서 거론한 자작시 ‘바람꽃’ 처럼 ‘바람’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람이 너구리 같은 바람으로 형상화된다. 무기물인 ‘바람과 햇살’을 육화시켜 자연의 섭리를 은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검푸르게 자라 이삭을 내고 있는 벼숲이 바람에 파도처럼 일렁이는 논뜰을 바라보며 “바람에 벼들이 쓰러지거나 앓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더니 농사꾼인 형이 “무슨 소리여, 햇볕이 밑에 달린 이삭까지 골고루 익게 하자면 바람도 필요한 법이여”란 말이

모티브가 되었다. 새삼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니 한여름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의미가 더해지고 벼들이 춤추듯 일렁이는 것도 햇살과 바람이 알곡을 잉태하고 익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질펀한 사랑놀음을 하려고 논뜰로 내려오는 산바람도 너살 좋은 너구리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농사꾼의 말 한 마디가 생태계의 단면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단서가 되어 그에 따른 상상력을 자극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시 전체를 끌여가는 동력이 된 것이다.

이 시의 주제는 모든 자연은 공생관계에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상생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머나먼 은하의 아기 천사들이
 온 밤을 재촉하여 내려왔다가
 이 어여쁜 나라의 지향地 좁에 반해 꽃이 되었다

튼실한 나무에 노오란 별꽃들
 가지마다 피어 기쁜 미소를 보낸다

은하계의 화성花星에서 이를 알고서
 별과 나비들을 보내어 축복을 내려주었다

며칠 뒤
 꽃자리마다 이슬 같은 방울이
 방울방울 맺히고 하루 다르게 살이 올라
 오동통 뽕오얀 불에 자스민 향내

칠월의 햇별에
 빠알강게 빠알강게 익어가니
 어루만져 주고 뽕뽕해 주고
 깨물어 주고 싶어

-창작시 「방울토마토」 전문

시의 세계는 무한하다. 상상의 세계는 시인들을 무시로 불러들인다. 거기서 놀다 건져올리는 것이 시라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시는 우주적 발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텃밭에 심어놓은 방울토마토 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꽃을 은하의 아기천사들이 지구에 놀러왔다가 지구에서 살고 싶어 방울토마토꽃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은하계의 화성(花星 ; 꽃들을 관장하는 별)에서 이를 알고 별나비를 보내어 축복을 내려준다. 며칠 뒤 꽃자리마다 이슬같이 맺히는 열매를 어린 아가의 여리디여린 볼에 비유하고 그 살내음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가지마다 빠알강게 주저리주저리 매달린 열매는 아무리 보아도 사랑스럽다. 어루만져 주고, 뽀뽀해주다 못해 깨물어주고 싶다. 이는 인간이 어린아이에게 쏟는 사랑의 감정과도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자연을 사랑하다 보면 동식물과도 감정을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자연계이며 이를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태양을 향한 해바라기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식솔들 저녁 준비로 분주한 말동서의 뒷모습 같다면
 달맞이꽃은
 하루종일 논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는
 작은 서방을 기다리는 새댁의 앞 모습을 닮았다

눈칫밥 먹는 사촌이
 무얼 먹어도 성이 차지 않는다고 했듯이
 작은 아씨는
 둥글게 둥글게 차오르는 보름달을 흠모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마다 까치발을 하고 선 달맞이꽃들
 한 줄금 달빛도 놓치지 않고 받아 마시려고
 마음을 다 바친다

구월 보름날 아침 들판을 걷다보면
 달맞이꽃들 만큼 행복한 얼굴이 없다
 밤새도록 품에 안겨 원없이 주고받은 밀어
 그 많은 주머니마다
 가득가득 채워넣고 있었기에

— 창작시 「달빛 사랑」 전문

이 시 또한 앞의 시처럼 자연계의 현상에서 착안하여 달맞이꽃을 과거 우리의 대가족제도하에 작은아씨로 의인화하고 목마른 사랑과 청춘남녀의 애뜻한 사랑을 보름달을 신랑과 연인으로 상징화하여 들녘에 지천으로 피어 밤이면 만개했다가 낮이면 수줍은 듯 다소곳이 서 있는 달맞이꽃의 특성을 ‘달과 달맞이꽃’의 사랑이야기로 승화시켜 생태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식물성 상상력, 우주적 상상력, 또는 신화적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의 생태시들이 이야기를 시에 도입하여 리얼리즘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렁이가 길바닥에 나와 땡굴고,
 개미떼가 줄지어 이사를 가면 비가 올 징조요,
 청개구리가 야단스럽게 울어대고
 하루살이가 떼 지어 날면 밤비가 내리고
 달무리가 맷방석 만큼 커지면
 다음날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한다

고추잠자리떼가 마당에 어지러이 날고
 물찬 제비 땅에 스칠 듯 분주히 먹이를 잡아 나르면
 소낙비가 쏟아질 징조요,
 노을이 조석으로 5월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이른 장마가 진다 한다

아침 무지개가 서면 강을 건너지 말 것이며,
 가랑비에도 옷 젖는 법이니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다
 여우는 비 올 것을 미리 알고 굴을 막는다지만
 하늘 우러러 몇몇한 자는 벗은 채로 비를 맞아도더없이 행복하다

— 창작시 「천기와 슬기」 전문

고향은 근원적으로 모성성을 지닌다.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에겐 고향은 땅(흙)을 연상하게 되고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해수와 빨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바다가 인접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이해하고 흙과 빨의 생태계에 대하여 체험을 통하여 체득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이미지는 자연과 접맥되게 되고 그러므로 아늑한 어머니 품속 같고, 어릴 적 향수가 저장된 추억의 보고(保庫)와 같은 곳이다. 이 보고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고향 어르신들이 생태적인 삶이 옛이야기처럼 들려온다.

이 시에는 천기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여름날 일기에 대한 정보, 특히 비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날마다 아침이면 방송되는 일기예보는 일회적이지만 조상들의 천기에 대한 정보는 생태적 철학까지 함유하고 있어 삶의 지침으로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이 시는 여름철 천기 일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삶의 철학이나 예지까지 담아 후손들에 대한 삶의 가르침까지 곁하고 있다.

비가 내릴 징후를 미리 예측케 하여 농사에 대비토록 하는 데 1차적 메시지를 두고 인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하여도 부언함으로써 조상들의 후손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화자는 현대사회에 팽배된 이기주의와 위선적 삶에 대하여 “하늘 우리러 몇몇한 자는 발가벗은 채로 비를 맞아도 / 더 없이 행복하다” 함으로써, 운동주의 “하늘 우리러 한 점 부끄럼이 없” 는 삶이 최고의 삶을 역설하고 있다.

삼삼모기 허리 부러지는 장마엔 무더위도 한풀 꺾였다
 심난하게 울어왔던 청개구리도 울음을 뚝 그치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양탈부리던 말매미 울음소리도 짹 가시고,
 앞 논배미에 개구리 합창만 시냇물소리처럼 떠내려갔다

늦장마가 지면,
 이웃집 영감님의 턱수염은 한 자나 자라 있고
 아버지의 근심은 열 자나 깊어졌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며
 부추부침개에 막걸리 몇 잔 곁치고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우면 잠귀(睡鬼)가 엮어가도 몰랐다

거미줄에 매달린 빗방울에
 풀벌레 음률이 고요히 젖어드는 저녁이면,
 두꺼비는 처마 밑으로 기어들고, 잠자리는 풀잎 뒤에 숨어
 비가 개이길 몇 날이고 기둘려야 했고
 아낙들은 긴 장마에 빨래 말릴 틈을 엿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창작시 「늦장마」 전문

늦장마는 7월 이후에 지는 장마를 말한다. 혹독하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도 이 시기에 오는 것이어서 극성스럽게 괴롭히던 모기들도 사라져버린 듯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상고온현상으로 이즈음엔 영악해진 모기들도 철 가리지 않고 아예 집안에 눌러 앉아서 서식하며 시도때도없이 달려들곤 하지만 예전엔 모기는 늦장마가 그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처서 때가 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그 시절 늦장마 때 사라진 모기는 집집마다 재배하던 삼(森)밭에 진을 치고 비를 피하고 살았다. 논밭둑을 허물어내며 쏟아지는 폭우는 그동안 애써 지어놓은 농사를 망쳐 놓기 일쑤였다. 그러니 농사짓는 사람에겐 늦장마가 지면 근심이 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꾼들이나 철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처럼 쉴 수 있는 “공치는 날” 이어서 부추전에 막걸리 몇 잔 걸치고 대청마루에 큰대자로 누워 꿀맛 같은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늦장마가 지면 두꺼비, 개구리는 비를 피하여 처마 밑으로 기어들고, 잠자리, 모기, 말매미, 풀벌레 같은 곤충들도 나뭇으로 장마에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대처하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아낙들이 빨래 말릴 틈을 엿보는 것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시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공동체를 이루며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천명하고자 했다.

또한 이 시의 토속적인 맛을 배가시키기 위해 구어체의 어휘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1연에서 “허리 부러지는 ~ 한풀 꺾였다”, 2연에서 “심란하게 울어났던 ~울음을 딱 그치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앙탈 부리던 ~ 울음소리도 짝 가시고” 라든가 3연에서 “이웃집 영감님 턱수염은 한 자나 자라 있고, 아버지의 근심은 열 자나 깊어졌다” 는 비유라든지 4연에서 “잠귀가 엮어가도 몰랐다”, 5연에서 “비가 개이길 몇 날이고 기둘려야 했고”, “빨래 말릴 틈을 엿보느라 ~ 여념이 없었다” 는 표현은 우리 농촌의 정서를 대변하는 토속적인 말이다.

“생태지향주의자들은 오늘날의 환경위기가 생태학적 지식이 없이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존립 근거인 자연

에 대한 지배, 기술, 대량생산, 소비 등의 요인들과 산업중심주의적 활동이 전지구적 생존의 위기를 몰고왔다고 믿는다. 따라서 생태학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근거한 사고와 생활 양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전지구적인 파국을 면치 못한다고 경고한다.”²¹⁾

그러면서 이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환경의 복원은 윤리의식의 회복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이마미치도모노부는 『에코에티카(eco-ethica)』²²⁾에서 “과학기술은 자연만이 인간의 환경이던 시대에서 1960년경부터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환경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이 현상을 ‘기술 연관(技術聯關)’ 이라고 칭하고 자연만이 환경이었던 시대의 행위 규범으로서의 윤리와는 다른 윤리를 세워야 한다며 「윤리적 대상의 다층화(多層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술연관의 지구촌시대에서 대면적(對面的)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시적인 인류전체로 미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훌륭한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전승하는 것, 자연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뒤이어 올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기술 연관은 자연 속에서 자기 설정(自己設定)과 자기 확장을 해 나가므로 자연을 대규모로 변혁해 왔다며 자연에 대한 행위 기준을 윤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므로 윤리는 대인 윤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물(對物) 윤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연의 관리를 떠맡은 존재로서의 드높은 자각은 새로운 ‘결손’을 요구하게 되고 사물에는 문화적 산물이나 기술적 산물도 있는 이상, 가령 예술적 걸작에 관한 보존이나 공개 따위도 윤리적 측면에서 촉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윤리는 그 주체의 확대와 아울러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에코에티카는 개인 윤리의 심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²³⁾

이러한 논의들은 궁극적으로 현대 기술사회에서 새로운 윤리관의 정립의 필요성과 이를 실천해 나아감으로써 직면하고 있는 인류 생존의 위기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일련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주의 상상력』, 실천문화사, 1999, 「2.생태지향주의」, 42-43쪽.

22) 에코에티카(eco-ethica):이마미치도모노부 지음, 정명환 역, 숲, 1993.

에코올로지(ecologie):생태학과 규범학(規範學) 또는 윤리학(倫理學)의 합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

23) 위의 책, 10-11쪽.

그러므로 생태관에 있어서도 다층적인 윤리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인 윤리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대물 윤리에 속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을 근원으로 하는 생태계 복원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고
 형제자매가 서로를 닮듯
 강물은 하늘을 닮는다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날
 강은 하늘보다 깊고
 떠도는 흰구름은
 조각배처럼 아득하고 신기롭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는 날
 물빛은 천심을 드러내 보이듯
 근심어린 얼굴이 된다

그러다가
 비라도 내려주는 날엔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춤을 추며 환호한다

눈 내리는 날
 강가에 서면 강은
 천진한 아이같이
 입을 한껏 벌리고
 눈송이를 받아 먹는다

우러러
 순종하고 살며
 하늘 닮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라

—창작시 「강물은 하늘을 닮는다」 전문

위 시는 눈 내리던 겨울 날 강을 내려다 보며 쓴 작품이다. 고요히 강물에 내리는
 눈은 강의 품에 안겨 스르르 녹아 강물과 한몸이 되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어린 시
 절 마당에 나가 놀다가 하늘을 향해 입을 한껏 벌리고 눈을 받아 먹던 추억과 겹치면
 서, 하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비 오는 날
 산촌은 무서운 정적으로 함락된다
 허한 바위밭 새
 무성한 잡초도 고즈넉히
 어깨 늘이고
 단꿈에 젖어 있거늘

우리네 인생은
 비바람이 수숫대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끝
 낙숫물 듣는 소리에
 비애를 느껴야 한다

—창작시 「원죄原罪」 전문

이 시는 어느 해 여름날 강원도 한 산사에서 즐기차게 내리는 장맛비를 창밖으로
 내다 보며 쓴 작품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산촌은 적막이라는 무형의 힘에 함락된 듯
 고요하기만 하다. 이런 날에는 인간이 얼마나 자연에 대해 무력한 존재인지, 수수깡
 으로 지은 허접한 집 한 채에 들어 사는 미미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된다. 그러면서
 비바람도 의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잡초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갖게 된다. 또한 고해
 의 바다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며 비감에 젖게 된다. 그러면서 이것
 은 태초에 인간이 지은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고 처마끝 낙숫
 물 듣는 소리에 무심할 수 없는 대자연 앞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네 인생에 대하
 여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IV. 결론

이상에서 같이 필자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단에 등장하게 된 생태시의 양상을 고찰하고, 생태시가 어떤 지점에서 리얼리즘과 접점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초기의 생태시가 후기로 갈수록 생명평등주의에 기반한 영성적 교감을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기성 시인들의 시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본인의 창작시에 적용해 봄으로써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적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지 모색해 보았다.

생태문학에 대한 담론은 자연, 환경, 생명 등의 관점에서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저술도 다양화되고 있지만, 결국 생태계의 문제를 어떻게 시로 형상화할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보여진다. 이를 크게 나누면 공해문제를 직접 다루며 현장을 고발, 폭로함으로써 대안을 찾으려는 쪽과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더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쪽으로 나눌 수가 있다.

초기 생태시는 대부분 전자에 해당하며 ‘자연’과 ‘환경’에 대한 현실비판을 통하여 환경·생태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복원시켜 나아가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이다.

결론은 생태시의 지향점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평등주의로 의식을 전환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겸손한 관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고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 가는 한편, 생태시에 있어서는 자연과 동일성을 회복하기 위한 겸손한 자세로 감수성의 혁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문명이 가져온 피폐된 윤리의식의 회복과 시대에 걸맞는 다층적 측면의 새로운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목처럼 생태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적 정신의 회통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첨부 시】

잃어버린 고향

고향에 가도
내 추억어린 고향은 없었다

포크레인 등살에
성한 곳 하나 없는 산과 들

죄없이
수평선 끝으로 내쫓긴 바다에
사람들은
혼령을 빼앗긴 허수아비처럼
건들바람이 부는 노래에 팔려
곡조를 타지 못한 헛춤을 추고 있었다

내 어린 추억은 그만 슬퍼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해오라기처럼
허공을 배회하다 돌아와야 했다

김씨의 칠월

보릿대 타는 연기 코끝 간질이고
 산밤나무꽃 보리누룽지처럼 익어가면
 등나무, 화려한 자색 등불이
 가난한 마을을 환하게 밝혔다

육십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김씨는 그래도 7월이 좋았다

텃밭에서 풋고추 한 주먹, 오이 한 둘 따다가
 찬물에 밥 말아, 고추장 된장에 찍어 먹어도
 한 끼 식사가 간단히 해결되고,
 땀 흘려 김 매고 돌아와선 옷통 훌훌 벗고
 지하수 바가지로 흠뻑 뒤집어 쓰고 나면
 오장육부까지 서늘해서 좋았다

마당가
 따다닥거리며 타는 보릿대 위에 생썩 한아름 덮어 두고
 밀짚방석 펴고 앉아 감자, 옥수수 찌다 놓고,
 팔순 노모와 모자지정 나누고
 별령 누워 별 듯 말 듯 끝내 숨어버린 별 하나 찾아보다가
 팔덕선으로 얼굴 가린 채 잠들면
 너른 나래를 활짝 펴고
 공작의 화관을 머리에 인 자귀 나무 아래
 어머니를 빼닮은 우렁각시가 배시시 웃으며 손을 내밀곤 했다

밀고자

발정난 산비둘기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밤

그들의 의기투합은 순전히 화사花蛇의 농간이었다

문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천당이나 극락에 보내달라고
 때때로 갖다 바친 눈 먼 돈에 있었다

자칭 타칭 성직자라 칭하는 그들이 한통속이 되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도 전생의 인연이었을까

그들의 공통된 기도는 서로의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쥐도 새도 모를 곳
 전지전능하신 분들과 박쥐의 눈까지 감쪽같이 따돌릴만한 곳
 이 은밀한 만남을 위해 마련된 듯한 장급 모텔이었다

오리백숙에 복분자주를 시켜놓고 권커니 잣거니, 향 좋은 양담배도 피워 물었다
 카키색 군용 담요가 깔리고 능숙한 솜씨로 패가 돌려진다
 부처님 말씀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강한 마력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근엄하시던 그들은 여느 통속한 노름꾼들처럼 욕설과
 음담패설까지 서슴없이 뱉아내며 땡땡이
 돌팔이의 배일을 유감없이 벗어 던졌다

축시丑時쯤 됐을 때 아랫도리가 무거워진 그들은
 잠시 밖으로 나와 신성한 달밤의 숲을 향하여
 오줌을 깔졌다 —실소하며

어스름 숲 속에서
 뺨눈같이 차가운 눈동자가 스프르 사라지고
 며칠 뒤 지옥 같은 마스크미 죽어라, 죽어라 떠들어댔다

윤월 閏月

연중 없던 달, 한 달을 덩으로 얻어 놓고
 인간 세상엔 말들이 참 많았다

어느 호사가는 이 기간 중엔
 천신天神과 지신地神도 휴식을 취한다며
 인간 세상에 대한 신의 감시도 당연히
 관심 밖에 있다고 부언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썩은 달이라고 하여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재수 없는 달이라고 깔아뭉개기도 했으나
 또 한 꽤거리는 이 숫대 같은 기간을 신성시하여
 면죄의 돌파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보에 들지 못하는 달이니 굳이 상서로운 날을 받지 않아도 되고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도 탈이 없다고 까불어대며
 차츰 대범해진 이들은 점점 불경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급기야 벌초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층층시하
 위에서 아래로 또는 나란히 누워 있던 조상의 못동,
 대대로 옷깃을 여미며 때때로 머리를 조아리게 하던 봉분은
 차례로 포크레인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지고 파헤쳐졌고
 유골은 개뻥다구처럼 수습되어 돌파리 이장꾼들의 토치가스에 태워져
 쇠절구 안에서 잘게잘게 뺱아졌다

일구 일구 가루가 되어 납골당 석조에 놓여지는 동안에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거래를 하는 도굴꾼처럼
 일신의 안일만을 위해 평안히 잠든 조상을 무참히 끌어내어
 천하의 불경을 저지르면서도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을 뿐
 간혹 천벌을 두려워하던 나이 지긋한 장남조차 이 거룩한 달의
 면죄부를 은근히 믿고 있는 눈치였다

왜목*

오십 리 무명의 고향 길도
한국판 성지순례길로 바꿔 놓은
해님이 해돋이 명소

가는 해는 조상하듯 배웅하고
오는 해 친주 맞듯 배알 못하면 천벌이라도 내리는지
긴 장마에 오가리 든 모래땅 개미들의 행렬 같이
예수님도 부처님도 못 말리는
장사진에 북새통

어느 이국의 해안처럼 우뚝 선 모텔들과
햇빛 사냥에 나선 포장마차의 난장은
대동강물 팔아 먹은 봉이 김선달 후예답게
네온빛 번쩍이며 풍악을 울려대며 안달이 났는데

새벽 잠 깬 왜가리 한 쌍
무슨 일 났는가
목을 길게 빼고서
고개를 가웃거리며
갯가를 어슬렁거린다

*왜목 : 충남 당진군 석문면에 있는 작은 포구. 해님과 해돋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 졌다. 본래 해가 뜨는 수평선에 있는 섬이 사람이 누운 모습과 닮았다 하여 와목(臥木)이라 했는데 근자에 와서 왜목으로 지명이 굳어졌다고 한다.

여주

야물딱지게 버티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다고
귀에 못박히도록 들어온 훈육 탓에 씨알조차 험상궂다

지심 깊이깊이 다짐하고 뭉툭한 고개를 내밀고 전후 좌우를 살핀다

햇고 높아진 날엔 그 본성에 불을 지르고 소낙비에 떡감으며 장담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창공에 오르고 말리라고 -

등나무같이 몸통을 가다듬고 사방에 매파를 보내어 닥치는대로 거머쥐고
달달 죄면서 영역을 넓혀갔다

욕망은 하늘에 닿았으나 반역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다

은밀하고도 왕성하게 별을 닮은 꽃과 위장술에 능한 달팽이까지 동원하면서
무장을 해왔지만 섭리를 거스른 죄, 다같이 자폭해야 할 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여름 숲길을 지나며

한여름 숲길을 지나노라면
수천 수만의 매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걸잡을 수 없이 쏟아내는 함성
그 소리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쏘인 듯, 물린 듯 자지러지며 질러대는 아우성
파도처럼 몰려왔다 바람처럼 휩쓸려가며
명멸과 소생을 반복하는 악성 바이러스
머릿 속 하얘지는 흑빛 파장

어떻게든 소리치지 않으면
죽어도 몰라주는 세상이니 그럴법도 하지만
작은 소리도 뭉치면 천둥이 되는 상법을
어느 곁에 저 용한 미물들도 터득하고 말았던가

소리에 소리를 더하는
이 뜨거운 소리의 감옥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고요와 평화를 만날 수 있나니

늦가을 풍경

참새떼 한 무리
 마당가 측백나무에
 날아와 앉는다
 어찌구 저찌구
 저찌구 어찌구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모두가 한 마디씩
 떠들어대더니

텃논에
 일제히 내려앉아
 꿀먹은 병어리가 된듯
 조용하다

요때다 하고
 무섭게 두들겨대는
 찌그러진 양재기의
 숨넘어가는 소리

질겁하고 흩어져 달아나는
 늦가을 도둑 바람의
 뒷꼭지가 서늘하다

봄별 한줌 흙치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참고 견디고 버텨오던
민초에
봄 오시는가 했더니
거짓였네

뒤죽박죽
문드러져
썩은 냄새 진동하는 나라에
의원은 태부족
수장은 헛소리만 풍풍
돌팔이 의사만도 못하고

허허 실실 빛나가는 세상살이
짜스니
조류 독감이니
구제역, 광우병이니 역병이 돌아치더니
3월 양지에 백년만의 폭설이란다...

내일은 또,
뭘 날벼락이 떨어지랴
뭘 천벌이 떨어지리

3월의 따스 봄별 한줌
흙친 죄뿐인
인생인데

누명 陋名

초겨울 김제별관
허기져 혈안이 된 무리들
검은 수의 囚衣의
눈들이 아프다

저들이
탐하는 것은 공작의 날개도 아니요,
백미로 가득 채운 부잣집 곡간의
기름진 쌀도 아니다
고작 들판에 떨어진 벼이삭과
썩은 들쥐의 시체가 전부일 뿐인데……

그 누가 저 아픈자들에
저승사자의 누명을 씌워
돌팔매질 하며
삿대질 하며
휘이휘이 쫓고 있느냐

빈 뜰에 앉아
허공을 향해
가아악, 가아악 내지르는 외마디 소리에
구천에 떠돌던 원혼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사하라사막을 헤매고 다니던 하이에나들까지
몰려와 합세할 것만 같은
이승의
을씨년스런 저녁나절

뽑아내야만 하는 것들

착각은 자유라지만
 못된 송아지 뿔 나듯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이 들수록 성글어져가는 새치와
 고개 숙이기 시작한 갈 논의 피 같은 족속들인데
 이들은 잠자코 엎드려 있길 못하고
 고개 뺏뺏히 치켜들고
 삐죽삐죽 튀어나와 말초신경을 자극하곤 합니다

새치는 이발을 하고 난 뒤엔 반항하듯 더더욱 은빛을 받으며,
 피죽 썩 먹을 세상도 아닌데 피란 늪은 황새만큼 목을 길게 빼고
 오만불손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이상한 기류 하나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새치를 뽑을 때면 영낙없이
 언제나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 치도 양보할 줄 모르는 몇몇 얼굴들이 떠올러지면서
 이들도 함께 뽑아내는 쾌감을 맛봅니다

가을 날 차를 타고 논길을 갈 때에도 삐죽삐죽 솟아난 피들을 보면
 그들 또 몇몇이 겹쳐지면서 잡것들 뽑아야만 하는데……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앙골마

가만히 가슴 쓸어내리며 숨죽이려 해도 풍선처럼 부풀어가는 날들이었다 침묵을 금쪽처럼 여기던 사람들과 그를 두둔하던 자들도 비로소 배반의 칼을 빼어들지 않고는 스스로 비굴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여느 사람들 못지않게 조금은 그럴듯한 옷으로 갈아입고 인파에 끼어 들어 물결처럼 휩쓸려가면서 사람의 냄새를 향수처럼 들이키던 그를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녀들이 엉덩이를 흔들며 꽃길을 지나고 있을 땐 종족을 이르라 하명하신 신의 임명을 받은 원효만이 오직 존경스러운 경문이었을 뿐, 그 무엇도 그를 움직일 수 없었다

포장마차에서 곡주 한 주전자에 바베큐 한 접시 시켜놓고 세속을 음미할 땐 극락이 코 앞에 있음을 깨달은 양 무릎을 쳤고 동료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기도 했는데 역시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큰 잘못이었다

다음 날 읍내의 뒷골목 어느 작은 여인숙에서 눈을 뜬 그 앞엔 사춘기적 가출했던 그의 동생 같은 사람이 문밖에 서서 어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혼자 크는 아이

오늘도 5학년짜리 영수는 텅 빈 학교 운동장에 나와 혼자서 공을 차고 있다
2년 전 숙희네와 희진네가 물으로 이사를 가고 난 뒤 학교도 문을 닫고 말았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고 나면 영수는 섬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엄마가 물에 나가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영수와 단 둘이서 섬을 지키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들어 줄 사람이 없는 섬

어떤 날은 바닷가에 나가 갈매기에게 말도 걸어 보고 지나가는 배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메아리도 대답이 없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지면 티비를 틀고, 성인가요 방송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
아버지가 물에 나가 고기를 팔고 지나해서 돌아오면 영수는 아버지 앞에서 그
노래들을 불러주었다.

섬에서 물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피부가 검어서 학교에 가기가 싫은 아이,
오늘도 영수는 학교 담벼락을 상대로 공을 걷어차다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
갈매기와 푸른 파도를 관중삼아 노래를 부른다

이반離反의 강

숲에 사는 개구리가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있을까요, 삼백육십도 돌아가는 이구아나의 고성능 레이더망에도 하늘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살아내기가 팍팍해지면 저들은 으레히 나무들이 또 무슨 심술이 났거나 못된 짓을 획책하여 또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줄로만 알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중의 산관, 관솔불 밑에 인부들이 마작판을 벌려놓고 왱자하게 떠들고 있으면 호랑이는 산등성이에서 발톱을 다듬으며 느긋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제 사는 땅이 내일 당장 갈았고 집 뒷산이 폭발한대도 설마 그런 왕재수가 내게 일어나겠냐는 사람들, 불맞아야, 불맞고 나서야 앓, 뜨거 뜨거 아이구, 나 죽네 발광을 하지만 그래봤자 그저 강 건너 일일뿐입니다

약썩빠른 자들은 라면만 사다 쟁여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지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었단 말에 이미 가게마다 라면이 동났다고 하는군요

백일홍

모두가 미쳐가고 있는 것이다 - 불에 데인 나방처럼

제멋대로 몰려다니며 물폭탄을 퍼부어대는 마적 때 같은 구름이 그렇고
 천지가 개벽해도 오로지 전의만 불지르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집단이 그렇고
 하라는 일은 팽개쳐 두고 정권의 먹살만 잡으려 하는 치정꾼들이 그렇고
 털끝만 건드려도 두 눈 부릅뜨고 쌍심지를 돌구는 이웃들이 그렇고
 무슨 마력에 감전된 듯 스마트폰에서 손 떼지 못하는 대세가 그렇다

세포 분열을 조장하는 마스크에 놀아나는 광기의 도가니 속엔
 에미 애비도 없고, 자식 새끼도, 남편도 아내도 없다
 내 한 몸 호의 호식하고 편하면 그만인 세상
 인륜은 거지발싸개처럼 버려져 안중에서 자꾸만 흐려져 가고 있다
 오늘은 마누라와 말다툼을 했는데 믿고 살던 마누라도
 어느 새 이 병에 깊숙히 감염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늘이 미쳐가니 땅도 미쳐가고,
 바다도 미쳐가고, 바람도 미쳐가고, 꽃들도 미쳐간다
 문명도 미쳐가고, 내 마누라도 미쳐간다
 아니 나도 덩달아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때
 산 속 음지에 해뜰 발그레하게 무리져 핀 진달래꽃을 보고 문둥이는
 눈이 뒤집혀서 천진한 아이를 꼬여다가 간을 빼 먹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던가
 허리띠 졸라매며 보리바심에 비지땀 흘리면서도
 하늘에 순종하고, 조부모 하늘처럼 섬기며
 인륜을 베개삼아 살던 때가 있었다더라 그때는
 세 번 피고 지면 쌀밥 먹을 수 있다 하여 선망의 눈길을 보냈던 백일홍,

멀쩡한 아이도 간지름을 많이 태우면 미치고 만다 했던가
가는 데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살랑대는 꽃송어리
오늘은 그 꽃들이 진달래꽃처럼 무서워 무서워

아마존 검정 칼새의 비극

악마의 목구멍
 이과수 폭포 거센
 물줄기를 뚫고 들어가
 검정 칼새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벼랑
 검은 절벽 틈에
 세상 어느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리라는 회심의
 등지를 튼다

행, 불행의 벼랑 끝
 물보라 자욱한
 천길 낭떠러지를 거슬러 오르며
 먹이를 잡아야 하는
 목숨 건 곡예는
 생각 밖의 일이었다

보름달밤
 쌍무지개 뜨는 피안의 천국도 잠시
 비상을 꿈꾸는
 새끼 칼새의 목덜미를 노리는
 도롱뇽이 거기 또
 블랙홀의 언저리에 도사리고 앉아
 음흉한 미소를 띄고 있을 줄이야

원죄原罪

비 오는 날
산촌은 무서운 정적으로 함락된다

허한 바위밭 새
무성한 잡초도 고즈넉히
어깨 늘이고
단꿈에 젖어 있거늘

우리네 인생은
비바람이 수숫대 집에
웅크리고 앉아

처마끝
낙숫물 듣는 소리에
비애를 느껴야 한다

상사화

번뇌의 世衣
한 오라기까지도
말끔히 벗어버리고
단, 한 곳
적멸보전을 찾아가는 보살들 같다

저마다
예지의 정수리에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고
부처를 향해 내민 손
열락으로 가득하여 고요히 떨고 있다.

한 떨기 화관에 담은 겹혀
세상사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으면
부처의 자비도 거기 머물 수 있으련만 ……

세월, 그 거룩한 보답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원수 앞에서도
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는 인자의 꽃

세월은 끝없이
눈을 껌벅이며, 주시하며
살아 생전이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정의의 손을 들어준다

평온으로 회귀하려는
세월의 힘은 강건하다

인고의 나날
가슴 속 생동거리는 분노도
세류에 맡겨두면
어느 새 세월은
분노를 슬그머니 내려 놓고
희미한 그림자만 싯고 흘러가나니

아버지의 경전 耕田

“××에 힘 빠지면 볼썽 다 본 거다”
 동양의 공씨도 석씨도
 서양의 예씨도 마씨도 설과하지 못하고
 그 제자 맹씨도 베씨도 말 떼지 못한
 우레 같은 말씀
 농사꾼 아버지가 던진 한 마디
 꿩도난마 같은 간단한 진리

“이빨 좋을 때 뭐든지 먹어 두거라”
 “눈 밝을 때 뭐든지 봐 두거라”
 “밥이 보약이다”
 “귀 밝을 땐 쌍욕을 먹어도 약이 된다”
 “근력 있을 땐 산 것 같이 살아야 한다”
 가방끈 책보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가
 첫닭 울기 전부터 소몰고 나가
 논밭 갈며 터득한 진리

넋리에 콧 박혀 떠나지 않는
 불경보다 성경보다 앞서는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대대로
 지어 먹고 산
 불변의 경전 耕田

강물은 하늘을 닮는다

자식이 부모를 닮고
형제자매가 서로를 닮듯
강물은 하늘을 닮는다

구름 한 점 없이 개인 날
강은 하늘보다 깊고
떠도는 흰구름은
조각배처럼 아득하고 신기롭다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는 날
물빛은 천심을 드러내 보이듯
근심어린 얼굴이 된다
그러다가
비라도 내려주는 날엔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춤을 추며 환호한다

눈 내리는 날
강가에 서면 강은
천진한 아이같이
입을 한껏 벌리고
눈송이를 받아 먹는다

우러러
순종하고 살며
하늘 닮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라

이심전심以心傳心

한여름 전에 장마가 오는 까닭은
 삼복더위를 감당하라고 미리서 물을 보내는 것이라는
 고향 어르신들의 말씀은 천심을 이르는 말이다

장마가 끝난 뒤 대지는
 길이란 길은 모두 햇볕에 내다 말리고,
 남아나는 수액은 모두 강으로 흘러보낸다

홀로 계신 팔순 어머니가 걱정되어
 불현듯 찾아 가는 고향 길
 동네 어귀에 서자
 시냇물도 별떡 일어나 손을 내밀고
 산마루에 키 큰 상수리나무도 머리채를 흔들며 좋아했다

자식 기다리는 부모 마음이 오죽하랴 하면서도
 한나절도 못돼서 뒤돌아 나오는 고살길,
 눈시울 그렁그렁한 어머니 얼굴이 발길마다 밟혀도
 길옆에 흐드러진 개망초는
 마누라와 새끼들 눈빛처럼 길을 재촉하고
 사열받는 병사처럼 줄지어 선 옥수수밭둑길 따라
 옷자란 토란들은 잘 가라 손을 흔드는데
 뻐꾸기란 놈은 한사코 가지 말라고 울어싸니
 해발간 자귀꽃 여린 꽃술이 궁벽한 내 안의 눈물로
 자꾸만 솟아오른다

바다와 어부

여명이 일고
 바다는 만삭이 되어갔다
 하혈을 하는 수평선
 거대한 불덩이 하나
 공룡처럼 고개를 든다

흥건히 터져나온 양수에
 불꽃이 일고
 기름보다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충천하는 화염 속
 일거에 재가될 것만 같은
 땅덩이

아득히
 반딧불처럼 출현하는 고깃배
 갈매기들의 호위가 시작되고
 서서히
 파도를 가르며
 개선장군처럼 돌아오고 있다

보아라,
 사선을 넘어 돌아오는
 구릿빛 어부의 장한 뱃길을
 바다도 보듬어준
 저, 가상한 용기를

갈매기

썰물보다 먼저 수평선으로 물려나갔던 바람이
 썩 썩, 물결을 앞세우고 돌아오면
 바다의 영혼처럼 빨발을 수놓던 사랑놀음도
 파도를 탄다

풍선보다 가벼운 몸짓으로
 공중을 선회하며 내지르는
 갓난아이 울음같이 간절하고
 때론 고양이 울음같이 날카로운
 배넛소리

돌고 돌아가며 앞치락 뒤치락
 그르렁그르렁 소용돌이쳐야만
 걸러지고, 빨아지고, 닦여지는 고단한 바다

세상 무엇에도 젓지 않고
 파도의 말씀만을 받들어
 목취도록 살아보지만
 끝내 물거품이 되고야 말
 저 덧없는 절규

허위虛爲

퇴색해가는 꽃잔디에 마음 끌리던 날은
 새낫 능청스럽게 드리워진 가로를 걸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았다

막 개화를 시작한 오월의 장미원,
 황토블럭 포도를 걸으며 고작
 어젯밤 친구놈과 나누던 술자리— 그 불판 위에서
 노릿노릿 익어가던 네모난 돼지 목살의 육면肉面을 떠올리고,
 빨래판처럼 깔린 화산석을 밟으며— 어느날 마누라가 사온
 순대에 섞여 있던 허파의 편면片面 같다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는 어찌된 셈이나

가공된 것들로 채워지는 세상,
 거기 현란한 장미꽃을 보아도
 살벌한 가시조차 목적에 뿌리 박고 있으니
 감탄 그 너머의
 아픔을 불러내지는 못한다

어느 폐선廢線
 두껍게 철로를 지키던 침묵은 지금
 나의 발길을 받쳐올리고 있다
 한 계단 두 계단 힘겹게 올라
 왕성히 뿌리내린 플라타너스와
 당당히 어깨 겨루고 있는 히말라야 소나무
 그 휘늘어진 그늘 밑에서
 나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쉰다

천당 극락이 이보다 좋다 한들

장맛비 개인 칠월의 아침은
생명이 없는 것들까지도 달떠 있다
철철 넘쳐 흐르는 강변의 바윗돌이며
뺨 뚫린 차도까지 살아서 꿈틀거린다

낮으막이 머문 구름 뒤 태양은
얼굴을 반쯤 내밀고 수직의 빛살을 쏘고
멀리 이내를 이룬 산맥들과
마알갹게 씻은 산하는 신비경을 자아낸다

갈맷빛 삼림마다 내뿜는 가쁜 숨결은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어 능선과 능선을 길게 휘감고
승천하는 용처럼 산정에 오르며 하늘에 맞닿아 있다

녹색 카펫처럼 펼쳐진 검푸른 들판 한켠에
용기종기 모여 있는 정겨운 농가와 마을 어귀,
믿음직한 느티나무 밑 정자의 안식

어떻게 나는 이다지 운 좋게도
여기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천당 극락이 이보다 좋을 순 없으리 또,
천당 극락이 이보다 좋다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산동반도를 건너며

여기 이런 곳에 天國 하나 지었으면 ……

—인간 세상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
초여름 숲 속 원숭이 울음이 뻗쳐 들리고
장닭의 뉘우음도 구름을 뚫고 들리는
여기 산동반도의 상공 같은 곳에—

카롱의 배를 타고 사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고
낙타의 바늘귀를 통과하지 않아도 좋은 곳
꿈결처럼 펼쳐진 대평원에 산과 강, 바다와 초원,
양떼의 무리까지 평화로운 나라

도리를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선하게 선하게 산 영혼이면 누구나
영생복락을 누리며
지상의 인연들이 보고싶을 땐
언제든지 넘나들 수 있는 곳

그런 천국이 있다면
이승도 저승도 사랑이
철철 넘쳐나지 않으련 ……

바람꽃

두륜산 골짜기에 해빙의 물소리 들리자
 일찌감치 바다를 건너와
 꽃망울을 희롱하던 남풍은
 동풍冬風의 호된 질타에 자라목이 되어
 산 속 낙엽 밑으로 잠입한다

한낱 쥐구멍이 거대한 방죽을 무너뜨리듯
 남풍은 꿈지락거리던 씨앗들을 부추겨
 눈보송이를 녹여내고 꽃을 피워냈다

이들을 바람꽃이라 부른다

지리하고 답답한 겨울의 담장을 헐고
 꽃바람이 온누리를 활보하게 된 것도
 그실 바람꽃 덕분일 것

너구리 바람

너구리 같은 바람, 경중경중
산비탈을 타고 내려와
논뜰을 휘젓고 다닌다

십칠 세 남자의 삼단 머리같이
일렁이는 검푸른 물결
개구장자들이 들추는 치맛자락을
햇살은 짹짹하게 파고들어
겨드랑이 사타구니까지 골고루
애무하고 있다

바람과 햇살의 열렬한 사랑에
칠월의 논뜰은 숨이 가쁘다

추석무렵이면 알알이 영글어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여 놓는 것이
햇볕만이 아니었다

방울토마토

머나먼 은하의 아기 천사들이
온 밤을 재촉하여 내려왔다가
이 어여쁜 나라의 지향地향에 반해 꽃이 되었나

튼실한 나무에 노오란 별꽃들
가지마다 피어 기쁜 미소를 보낸다

은하계의 화성花星에서 이를 알고서
별과 나비들을 보내어 축복을 내려주었다

며칠 뒤
꽃자리마다 이슬 같은 방울이
방울방울 맺히고 하루 다르게 살이 올라
오동통 뽕오얀 불에 자스민 향내

칠월의 햇별에
빠알갹게 빠알갹게 익어가니
어루만져 주고 뽕뽕해 주고
깨물어 주고 싶어

달빛 사랑

태양을 향한 해바라기의 조건 없는 사랑이
식솔들 저녁 준비로 분주한 매통서의 뒷모습 같다면
달맞이꽃은
하루종일 논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돌아오는
작은 서방을 기다리는 새댁의 앞 모습을 닮았다

눈칫밥 먹는 사촌이
무얼 먹어도 성이 차지 않는다고 했듯이
작은 아씨는
둥글게 둥글게 차오르는 보름달을 흠모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저마다 까치발을 하고 선 달맞이꽃들
한 줄금 달빛도 놓치지 않고 받아 마시려고
마음을 다 바친다

구월 보름날 아침 들판을 걷다보면
달맞이꽃들 만큼 행복한 얼굴이 없다
밤새도록 품에 안겨 원없이 주고받은 밀어
그 많은 주머니마다
가득가득 채워넣고 있었기에

민들레

얼마 전
가로수 은행나무 밑등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던,
갓난 병아리 부리같이 노오란 꽃잎들
어느새
은하의 별들로 반짝이더니
천사의 초대라도 받은 양
폴폴이 헤어지며
가벼운 솜털 하나씩 붙들고
주저없이 하늘에 오른다

주신 땅 주신대로 꽃피워내고
한생을 살다가는 것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마음 착하게 살다가
허허실실 비우고 나면
바람의 눈치도, 허공의 눈치도 볼 일 없이
솜털보다 가벼워지는 걸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내 가슴 한켠에도 민들레 꽃씨를 심었다
저 드넓은 허공을 향해 언제라도
미련없이 길 떠날 수 있도록 하자고

묵계 默契

어디서 날아왔나
 저 많고 많은 꽃나비들
 분수처럼 솟아오른 꽃구름 아래
 별떼처럼 쏟아져 나온 인파 만파

어질머리 앓는 수강아지처럼
 돌고 돌아가는
 팔십 리 섬진강 길

아서라, 눈 멀라, 범접도 마라
 대발머리 발독서만 오르내리며
 그래, 그래, 그래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물까치들

삼살개

오뉴월 답싸리 밑에서
 느긋하게 오수를 즐기고 있던 삼살개에게
 쉬파리 한 마리 날아들어 코끝을 간지럽힌다

살며시 한 쪽 눈을 뜨고 본다
 입가에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려
 날쌔게 나뺀다
 실패다

그렇게 번번히 실패를 거듭하고
 화가 잔뜩 나서 양칼지게 짓는다

그러다
 제 모습 지켜보던 주인을 발견하고
 계면쩍은 듯 다가와
 꼬리치며 아양을 떤다

황진이

춘삼월,
송도 자남산 꽃길에 물든
열아홉 진이의 부푼 가슴이더노

못 남정 춘정을 휘어잡고서
사랑의 혼백일랑
붉은 스란치마에 감싸 보내고
달빛 애무받으며 고독을 씹는 요조숙녀여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찬 세상에
지고지순한 사랑이 그 어디 있더냐
일말의 향기조차 결연히 내던지고
시황詩風을 따라 나선 도저한 여심아

하룻밤 으스스하게 품었다가
꽃물로 흘러내릴지언정
차라리, 만유의 사랑으로 피었다가
초혼初昏녘 노을처럼 산산히 스러져가리라

회오悔悟의 꽃바람 속
눈빛 휘황히 천지를 희롱하며
꿈결인 듯 미련없이 길 떠나는 무애無碍의 화신花神아

원효의 봄

여왕이 오시는 오월은
감싸는 햇볕이 하도 좋아서
스치는 바람결, 흐르는 물결에서도
살갑고 기분 좋은 향내가 난다

새로 산 카시미론 이불 속처럼
보드랍고 간지러운 섬섬옥수에
앵초를 한 입 먹은 원효처럼
땡초를 한 입 씹은 원효같이
두 눈 질끈 감고, 두 귀 틀어막고
봄빈 듯 바람인 듯
애욕의 정령 한아름 안고
요석궁 후원에
덤씩
들어선 사내

늦장마

삼森모기 허리 부러지는 장마엔 무더위도 한풀 꺾였다

심난하게 울어썩던 청개구리도 울음을 뚝 그치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양탈부리던 말매미 울음소리도 짹 가시고,
앞 논배미에 개구리 합창만 시냇물소리처럼 떠내려갔다

늦장마가 지면,
이웃집 영감님의 턱수염은 한 자나 자라 있고
아버지의 근심은 열 자나 깊어졌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며
부추부침개에 막걸리 몇 잔 걸치고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누우면 잠귀(睡鬼)가 업어가도 몰랐다

거미줄에 매달린 빗방울에
풀벌레 음률이 고요히 젖어드는 저녁이면,
두꺼비는 처마 밑으로 기어들고, 잠자리는 풀잎 뒤에 숨어
비가 개이길 몇 날이고 기둘려야 했고
아낙들은 긴 장마에 빨래 말릴 틈을 엿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자연과의 만남

옥상 한 귀퉁이에
 흙을 채워 만든 한 평 남짓한 텃밭은
 도심 속 자연과 만나는 한 즐거움이다

지난 해 늦가을, 마늘을 심고 남은 공지에
 부추, 상추, 얼갈이 배추씨까지 뿌려 놓고
 근처 남광주시장 난전에 때맞춰 나온
 고추, 토마토, 가지, 들깨 모종 몇 주씩
 고혈압, 당뇨에 효험이 있다는 여주씨까지
 톱툰이 심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리며
 물을 주고 풀을 매주었더니 어느새
 번쩍번쩍 커가는 녀석들
 저마다 무성히 잎을 펼치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마늘과 배추를 수확해 김치도 담고
 가끔씩 부추와 상추, 풋고추까지 따다가
 찬거리로 내놓으면 그야말로 무공해 꿀맛!

작물을 가꾸는 일은
 자연과 만나는 경건한 일이다
 저들은 말이 없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면
 좋아라 몸을 흔들며
 저만의 독특한 향기로 다가선다

토마토 잎을 건드리면 토마토잎 냄새
깻잎을 건드리면 깻잎 냄새
여쭙잎을 건드리면 여쭙잎 냄새
.....

매미

대청마루에 누워
그 울음바다 삼매경에 빠져들면
폭폭 삶아대는 무더위도 작두 끝에
여물처럼 잘디잘게 썰려 나가고
그 울음 바다에 휩싸이면
수천 군중이 외치는 함성의 파도에
휘말리게 된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불별에 목이 타 죽겠다고
몇 날 며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일제히 떼를 쓰고 나면
하늘은 신통하게도
여우비 한소끔이라도 내려주곤 했다

고향

고향은 어린 추억의 보고寶庫
그리운 것들을 더욱 그립게 하는
꿈속 같은 곳

시린 데 가려주는
어머니 품속 같은 곳

마음 깊은 곳 감돌아 흐르는 강물

고달픈 객고에 시달리다 보면
한 며칠 푹 쉬어 오고 싶은 곳
겹친 피로를 한꺼번에 풀어줄 것 같은 곳

어느 늦여름 저녁의 귀가

어스름 녘, 담양 금성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길
꿈속 같은 터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둠에 물들어 가는 들판 멀리
숲은 밖으로 내놓았던 푸른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안으로 끌어 들이고
하늘가에 드리워진 산맥의
검은 등줄기는 구름자락을
끌어 덮는다

노을바다에
한 방울의 핏빛 포도주마저
쭈욱 딸아 낸 듯한 초생달은
와인그라스 잔

애처로운 얼굴로 나를 보며
이 화평의 땅
복된 등불을 두고
어딜 가느냐며
끈질기게 따라오네

코스모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늦은 봄날부터 피어
 시도 때도 없이 피는 꽃이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폐가 드문드문 보이는 시골길에서
 고요히 묵상에 잠기며
 수시로 찾아와 숲속의 근황을 들려주는
 벌나비와 진중일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호접란과 후조의 꿈

나비의 날개 뒤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 고운 날갯짓에 공중이 일렁이고, 일렁이는 잔바람은 꽃잎을 흔듭니다

북경의 호랑이가 가끔씩 포효하는 까닭은 코끝 간질이는 파리 때문이란 말을 들으면 실소할 수도 있겠지만, 종이컵에 싸인 촛불 하나 하나가 광화문 네거리를 빛바다로 만들고, 순천만을 날아오른 청둥오리떼가 공중을 말아대며 군무를 펼치지 않던가요

은밀히 날아 앉은 나비는 꿈틀대던 애벌레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며, 없는 듯 꽃술에 날개 접고 있음은 날아 오르기 위해 주유중이라는 것과 날개를 활짝 펴서 오염한 자태를 선보이는 것도 그실 사랑을 위한 세레모니이거나 비상하기 위한 전단계라는 것입니다

피워낸 꽃이 나비를 닮았다고 호접란이라 불리는 꽃들도
 세상 밖으로 날아가고 싶어 보랏빛 화색(花色)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드리워진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옥빛 손목은 어찌나 야멸친지……

사념의 창밖 후조 한 마리 여름내 울며 떠난 뒤
 미명을 밝히는 수탉의 뉘우음이 가을 동녘을 밝히면
 거기 나비처럼 날아올라 기어이 허공을 붉게 물들일 당찬 후조의 꿈도
 서늘한 꽃물로 녹아 있을 겁니다

질경이

그 망국의 설움을 씹으며 내몰린 신작로에서도,
차에 깔리고 질경질경 짓밟히면서도
모지락스럽게 모지락스럽게 살아났다

땅바닥에 납작 엎디어
쇠심줄 같은 힘줄로 제 식솔들 뽕뽕 묶어
뿌리에 동여매고 질기디 질기게
얼싸안고 살아왔다

온갖 고난과 핍박, 심하면 심할수록
인내와 용서, 사랑의 인자도 수위를 높혀
땅바닥에 밥숟가락 같이 퍼져서
흉년이 들어 끼니가 간 데 없을 때에도
목구멍에 풀칠하며
쥐꼬리 같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다

천기와 슬기

지렁이가 길바닥에 나와 뒹굴고,
개미떼가 줄지어 이사를 가면 비가 올 징조요,

청개구리가 야단스럽게 울어대고
하루살이가 떼지어 날면 밤비가 내리고
달무리가 땃방석 만큼 커지면
다음날 새벽부터 비가 온다고 했다

고추잠자리떼가 마당에 어지러이 날고
물찬 제비 땅에 스칠 듯 분주히 먹이를 잡아 나르면
소낙비가 쏟아질 징조요,

노을이 조석으로 5월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이른 장마가 진다 했다

아침에 무지개가 서면 강을 건너지 말 것이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했으니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는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여우는 비 올 것을 미리 알고 굴을 막는다지만
하늘 우러러 땃땃한 자는 벌거벗은 채로 비를 맞아도
더할 수 없이 행복하다 했다

어떤 언명

새끼들 태어날 때마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막아주던
 플라타너스, 자애慈愛의 손길도
 세도世道의 칼날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했다

늦가을 밤
 모진 바람에 찬 비 맞은
 잎새들은 울긋불긋 열꽃을 앓다가
 쿨럭쿨럭 기침하듯, 우수수
 떨어져 갔다

썩한 가지 사이 경색된 하늘로
 고된 길 찾아오는 때 기러기,
 산사山寺 처마 끝 풍경風磬처럼
 설한풍에 오금이 저려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매달려 있다가
 새 봄 되어 푸른 잎 돌아나거든
 은빛 축포 터뜨려주고
 병아리 깃털보다도 가벼이,
 보일 듯 말 듯
 산화散化하라 하신 지엄한 말씀

추석 및 열사흘 달빛의 기억

추석및 열사흘 달이 대낮같이 밝은 토방마루에 아버지는
 풋콩을 한아름 꺾어와서 밤 늦도록 까셨다 갓짚은 헝살에
 넣어 먹는 풋콩은 맛도 맛이지만 송편 속을 만들고, 두부
 를 만들기에 많을수록 좋았다

달이 이웃할 때까지 그 많던 콩단도 기어코 다 까고 마
 시는 걸 아는 까닭에 부엌일을 마친 어머니도, 누이도, 나
 도 함세하여 거들어보지만 바가지가 반쯤 차 오면 누이와
 나는 슬며시 빠져나오고 콩깍지를 외양간으로 가져갈 때
 까지 곁을 지키는 건 어머니였다

하얀 달빛 아래서는 굳게 잠긴 사랑채의 녹슨 문고리도
 외양간에 매놓은 암소의 코뚜레보다 선명하게 보이고 까
 마득한 창공에 멧진 빗금을 그려 보이려던 유성도 지푸라
 기 불씨처럼 힘을 잃고 말았다

사랑채 안의 귀신의 그림자도 내비칠듯한 달빛은 그 무
 슌 알 수 없는 적요의 기운이 서렸는지 마당에 나가 서면
 풋콩같이 여물지 못한 초라한 내 몸뚱이를 누군가 보고 있
 지나 앓을까 얼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경호, 『휴머니즘 구현의 미학』, 시와 사람, 2006.
-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 김기택 외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 김명수, 『바다의 눈』, 창비, 1995.
- 김옥동, 『생태학적 상상력』, 나무심는사람, 2003.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84.
-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도서출판 삼인, 1999.
- 김종철편, 『녹색평론집 1』, 녹색평론사, 1993.
- 김종철편, 『녹색평론집 2』, 녹색평론사, 2008.
- 김종철편, 『녹색평론집 3』, 녹색평론사, 2009.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1.
-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 노창수, 『한국 현대시의 화자 연구』, 푸른사상, 2007.
-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창비, 1998.
- 신덕룡, 『초록 생명의 길Ⅱ』, 시와 사람, 2001.
- 신덕룡, 『생명 시학의 전제』, 소명출판, 2002.
- 신덕룡, 『환경위기와 생태학적 상상력』, 실천문학사, 2004.
- 신동욱, 『시상과 목소리』, 민음사, 1991.
- 신현락, 『한국 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화사, 1998.
- 유성호, 『한국 현대시의 형상과 논리』, 국학자료원, 1997.
- 유성호, 『침묵의 파문』, 창작과 비평사, 2002.
- 윤여탁·이은봉, 『시와 리얼리즘 논쟁』, 소명출판, 2001.
- 이동순, 『봄의 설법』, 창비, 1995.
- 이문열·권영민·이남호 엮음,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이상오, 『한국 현대시의 상상력과 자연』, 도서출판 역락, 2006.
- 이승하, 『한국의 현대시와 풍자의 미학』, 문예출판사, 1997.
- 이은봉, 『시와 생태적 상상력』, 소명출판, 2000.
- 이재무, 『구름속에 나를 다린다』, 지식을만드는 지식, 2014.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1956.
- 조태일, 『조태일전집:시2』 창비, 2009.
- 최두석, 『시와 리얼리즘』, 창작과 비평사, 1996.
- 한면희, 『환경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6.
- I.A.리처즈 『문예비평의 원리』, 김영수(역), 현암사, 1977.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 이마미치도노부, 『에코에티카』, (정명환 역), 숲, 1993.

2. 논문

- 김경미,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 김명인, 「김수영의 〈현대성〉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4.
- 김혜영, 「비판과 역설의 시정신」, 한신대학교 문예창작대학원 석사, 2003.
- 박인옥, 「한국 현대 생태시의 의식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배한봉, 「정지용 시의 생태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0.
- 송영상, 「최승호 시의 문명비판과 죽음의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1.
- 윤혜옥, 「문정희와 김혜순의 젠더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 2014.